

[북한회복과 부흥을 위한]

30일 중보기도

[박용화 · 박은희 공저]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



저자 박용화 · 박은희

● 박용화

- Missouri Baptist College 졸업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
- Youth With The Mission(前 예수전도단) 간사
- 제3국에서 7년간 북한과 중국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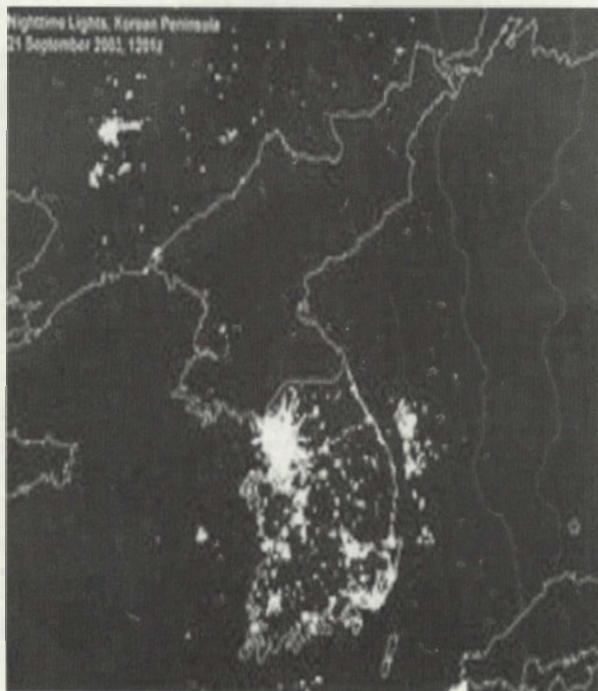
● 박은희

- 1968년 평안남도 개천군 개천읍에서 출생
- 개천인민학교와 천리마1고등학교 졸업
- 1998년 11월 말 탈북
- 1998년 성탄 때 예수님 영접
- 2001년 미션홈에서 북한회복을 위해 기도책자 집필

북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30일중보기도

Again 1907

박용화 · 박은희 공저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지도


Godsend

북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30일중보기도

Again 1907

30 Days of Intercession

Korean Edition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www.VM1.globa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서문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2:8)

내 숨 쉬는 공기에
내 몸에 비취는 햇빛에
당신의 사랑이 꼭 차있습니다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위층에도 아래층에도
당신의 사랑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내세워주고 싶으신 그 마음속에

천하를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자애 속에...

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랑도 있는 가고
사랑 밖에 밀려났던 이 몸
70고개를 넘어선 오늘에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늦게나마 알고 읊니다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웁니다

이 시는 34년 동안 한국 감옥에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리인모 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친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시들보다도 더 뛰어난 김정일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우상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들은 김일성 부지를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북한 사회의 우상을 깨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숫자가 아주 적게 잡아도 10~20만 명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폐쇄된 나라,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되었던 나라 가운데서 불과 10여년 만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역사 뒤에는 중보기도자들의 눈물과 땀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어서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북한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만약 북한을 위해 외치는 자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북한을 위해 눈물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중보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총이 과녁을 정확히 뚫는 것과 같이 정확하며 효과적이기를 원하십니다(우리들이 드렸던 많은 기도들이 목표를 정확하게 명중시키지 못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성경을 통해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북한 가정을 2001년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중국으로 나온 지 몇 년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된 기간에 비해 믿음이 깊은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글을 쓰셨던 분이셔서 그분께 여러 자료들을 드리면서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에 관한 글을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쾌히 승낙해 주셨고, 몇 달 후 글을 마치셨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생활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분의 글을 읽으시면 북한의 어떤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시온(북한)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평양)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북한)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평양)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사 62:1) 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잠치 않는 파수꾼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북한을 기억하게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멸시 대신에 찬송을 받게 하시도록 북한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방법과 순서

우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책자를 읽으시면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할찌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 148:12-13).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시 100:4).

2. 죄를 자백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

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3.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4. 중보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5.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

라”(막 11:23-24).

6. 본 책자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읽으면서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7.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을 믿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시66:20).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107:1).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 외에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종이에 적으셔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를 많이 읽으셔서 많이 익숙해지시면 곧바로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각 분야 가운데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매스컴이나 북한전문가 또는 탈북자들을 통해 알게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차례

* 서문	4
* 중보기도 방법과 순서	8
* 차례	9

1부: 북한의 일곱 분야

1일 - 일곱 가지 정신 영역	14
2일 - 교회(1)	19
3일 - 교회(2)	26
4일 - 교육(1)	33
5일 - 교육(2)	40
6일 - 정치·군사(1)	47
7일 - 정치·군사(2)	53
8일 - 언론(1)	61
9일 - 언론(2)	66
10일 - 문화·예술·체육(1)	73
11일 - 문화·예술·체육(2)	79
12일 - 경제·과학·기술(1)	88
13일 - 경제·과학·기술(2)	95
14일 - 가정(1)	101
15일 - 가정(2)	107

2부: 북한 개요와 중요 도시들

16일 - 북한 개요(1)	116
17일 - 북한 개요(2)	121
18일 - 평양특별시(1)	125
19일 - 평양특별시(2)	128
22일 - 신의주	133
21일 - 개성 ^과 개성공단	137

3부: 간증과 북한을 위한 중요 기도 제목들

22일 - 탈북자들	142
23일 - 새터민들	146
24일 - 북한의 미래 지도자들	150
25일 - 북한 여자와 아이들	155
26일 - 북한 선교 사역자들	160
27일 - 복음통일	163
28일 - 1907년 대부흥운동(1)	168
29일 - 1907년 대부흥운동(2)	171
30일 - 북한을 위한 24시간 중보기도 운동	177

4부: 부록

1. 중국에서 온 편지	182
2. 곡산의 순교자	184
3. 진 다넬의 환상(영문)	186
4.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188
5. 기업무를 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책임	191

〈제1부〉

북한의 일곱 분야



김일성 동상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2:8)

1일: 일곱 가지 정신 영역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대하 7:14)

이 중보기도 책자는 북한 사회의 전 영역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도하고자 일곱 가지 정신 영역(seven mind molders)'을 선택하여 구성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위한 일곱 가지 정신 영역은 YWAM(한국명칭: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이신 로렌 커닝햄과 C.C.C.를 창시하였던 빌 브라이트 총재로부터 골격이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이 골격을 채택한 이유는 한 나라 전체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이 골격만큼 효과적이면서 체계적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YWAM의 로렌 커닝햄은 기도하시면서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일곱 가지 분야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그 분야의 주권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한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975년,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전 영역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나에게 떠오른 것은 전 세계가 일곱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우리가 한 나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일곱 가지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곱 가지 분야는,

1. 가정 2. 교회(종교) 3. 교육 4. 정치(군사) 5. 언론 6. 문화예술 및 체육 7. 경제(과학, 기술)이며 나는 이 생각을 종이에 적어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인 C.C.C.의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에게 주셨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떠올랐던 생각과 같았고 또한 그 영역이 단어상의 표현과 나열만 다를 뿐 내가 주머니에 넣어 둔 쪽지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곱 가지 분야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사회를 형성해 가는 것과 또한 온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확장해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곱 가지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로 사단에게 속한 영토를 취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

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곱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 1부에는 일곱 가지의 영역과 그에 따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책자를 따라 하루 하루 기도하면 두 주일 후에는 북한의 전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에만 묶이지 마시고 중보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른 기도 제목으로 이끄신다면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이 책자는 당신을 중보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로만 이끌었다고 해도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또한 너무 신비주의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소식을 들은 후에 수일 동안 들려온 나쁜 소식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일곱 가지 분야의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낳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글 중에는 한국에서 쓰는 용어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중보기도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글들의 대부분은 탈북한 한 가정의 어머니께서 품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그분의 어투

그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기도 책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북한의 구체적인 사정과 형편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북한의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으로부터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의 외침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의 전 영역(일곱 가지 분야)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2. 북한의 무너진 전 영역(일곱 가지 분야)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3.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북한을 품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

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느 1:4).

4. 복한을 위해서 부르짖는 증보기도자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증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딤펴 2:1).

2일 : 교회(1)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찌니라”(사 40:2)

몇 년 전만 해도 흑암으로 덮여 있던 북한 땅에 촛불처럼 타오르는 작은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되었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나라, 고통과 신음과 굶주림 속에 눈을 뜨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흠이 되어버린 나라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작은 씨앗들이 곳곳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져 있고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며 죄를 사하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조선 개신교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1866년 9월 5일, 토마스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대동강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성경만을 건네주고 흘렸던 순교의 피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중국 선교사로 왔던 스코틀랜드의 장라스 목사님에 의해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에는 연

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1907년 1월 6일에는 장대현교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9월 9일, 장로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에 굴복함으로써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 지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 그후 20년 후인 1958년 9월 9일에는 김일성 정부가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3천여 개의 북한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숨은 지하 교인이 있을 뿐, 북한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선포되는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현교회 자리에 북한이 1972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20m 높이의 초대형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대현교회가 서 있던 장대재 언덕을 '만수대'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90년대 초부터 있었던 식량난을 통해서 북한 역사상 가장 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993년부터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996~1998년 사이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 땅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한사람들 안에서는 “중국에 들어가서 교회만 찾아가라. 그러면 산다.”라는 소문이 나돌아 실제 탈북한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복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받아왔던 교육 때문에 복음을 처음 대할 때에는 큰 반응이 없을 때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제시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조용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떤 이는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한 북한 소녀는 10분 정도 복음을 제시했을 때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던 한 북한 비밀 공작원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래 성도들을 죽인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내래 그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내래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16세의 탈북 소년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자기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이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달아 눈물을 지으면서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북한이 지금 이처럼 황폐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북한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북한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년 반 정도 지도자 양육을 받은 한 소녀는 “나도 모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여종이 되어서 죄악 중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

리 민족들을 위해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 하는 자가 되겠으며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더 커다란 역사가 북한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기도, 감사와 찬양)

1.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던 죄를 용서하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느 1:6-7)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1938년 9월 9일, 장로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에 무릎 꿇은 치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대에 이스

라엘을 두 나라로 갈라 놓으셨는데 어찌면 우리나라의 분단 원인도 기독교인들의 우상숭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 결정 후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 20년 후인 1958년 9월 9일에는 북한에서 교회를 추방한다는 김일성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고(故) 한 경직 목사님은 템플턴상을 타실 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사 앞에 절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사참배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은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구약성경의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며 금식하고 울며 회개합시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2.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으로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북한땅 가운데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을 향한 우상숭배의 영이 깨어지게 하소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2-23).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우상 앞에 절을 했고 지금도 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한에서 2001년 8월 15일에 북한에 간 사절단 중에도 김일성 동상 앞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은 우상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향하는 것에 가슴아파 하면서 우상 앞에 참배하는 북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영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 탈북선교를 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무너진 북한을 세우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탈북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7-3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상).

탈북자들이 많이 생겼던 1997~1998년에 연길에 가면 탈북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길에 가면 많은 분들과 교회가 탈북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탈북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시거나 추방된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두려움 때문에 혹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탈북자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하며 탈북자들을 피하는 중국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탈북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육 받는 탈북자들이 북한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일 : 교회(2)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하나님께서서는 북한 땅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탈북자는 탈북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을 당한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후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온 소녀의 말에 의하면 자기 고향에는 중국의 조선족교회에서 양육 받던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1년 봄에는 신앙교육을 받던 60명 가량의 북한 사람들이 공안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압송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감옥에 있던 다른 북한 사람에게까지 전도했습니다(감옥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던 한 소년은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현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장래 희망은 목사님입니다).

2002년 여름에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가 나온 17세 소년은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씨앗을 들고 북한으로 선교하러

갔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수속을 하였지만 북한 땅을 밟는 사람들은 적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우리는 무사히 수속을 끝마쳤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 꽃제비들도 다 주려니까 조금 힘들었다.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이다.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후 공책, 연필, 고무, 원주필 등 학용품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학생들 책상 위에는 필기장도 없어 공부시간에 듣기만 한다. 매학생마다 2대의 연필과 3개의 공책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 정부사람들은 수시로 우리들을 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에 매일 새벽 2시부터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였다. 그 사람들도 맨 처음 빈 말로 들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핵 돌아버릴 정도까지 믿음이 자랐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고 지금도 박해하는 북한에는 봉수교회(1988년 건립)와 칠골교회(1992년)라는 2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고 장충성당(1988년)이라는 1개의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평양에는 신학교가 있고 2만여 개의 처소교회가 북한 전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전용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고 성령감화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북한이 개방하거나 남북한이 통일이 될 때 북한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2005년 초에는 북한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한 소년과 비

밀리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북한으로 잡혀간 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보위부에 의해 거의 죽을 뻔 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통화 중에 “아버지(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믿는 것이 발각되거나 비밀리에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지하교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55여 년 동안 결코 열릴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문은 복음을 향해 열리고 있고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신실한 중보기도자들과 복음전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수많은 나라에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북한 땅 가운데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 11:4-5).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북한 가운데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제 북한 땅에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을 위해, 그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비록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백성들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2. 1907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보다 더 큰 복음의 부흥이 남북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을 2:18, 23, 24, 28~29).

기독교 역사상 보기 드문 부흥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영적인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할 때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향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땅에 복을 부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하나님의 신을 북한의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여자와 남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의 물결과 성령의 바람으로 남북한 땅을 흔드시도록 기도합니다.

3.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된 조국이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게 하소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겔 37:16-1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

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1-3).

하나님께서 북한과 남한의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감싸 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한만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더 크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힘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민족으로 인해 수많은 족속과 백성이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종교계 가운데서 깨어져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묶어주시고 쫓아주소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북한의 종교계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과 영이 있습니다.

1. 우상숭배(신이 되어버린 김일성과 김정일)
2. 주체사상(통치수단이 되어버린 종교적 사상)
3. 진화론과 무신론(하나님의 존재 부인)
4. 고립과 폐쇄(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
5.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북한체제와 사상을 위협하는 종교)
6. 두려움과 공포(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핍박과 죽음)
7. 미신(점쟁이들을 신뢰하는 마음, 북한 주민들 중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짐)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의 가정 가운데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 버리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견고한 진)을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읍시다.

4일: 교육(1)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미 4:2)

북한의 교육은 크게 학교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초등교육은 탁아소와 유치원인데 유치원은 2년 교육으로 낮은 반(1년)과 높은 반(1년)으로 나누어집니다. 초등교육은 소학교 과정 4년이고 중등교육은 중학교 6년 과정입니다.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대학 과정과 비슷한데 학부 과정은 전문고등학교(3년), 단과대학(4년), 대학(4~7년) 과정들이 있고 이후에는 연구원과 박사원(2~3년) 과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1975년 이후부터 11년 무상의무교육제도(유치원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를 시행하면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누구나 배우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교육 목적은 당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인물들을 만들어 내는데 있습니다. 1977년 9월 5일 북한은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과 교시를 정리하여 교육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43조에도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교육은 인간의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성해서 공산주의의 충직한 혁명투사로 길러 내려하는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중학교 6년 과정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역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국어문화’ ‘대수’ ‘기하’ ‘물리’ ‘화학’ ‘생물’ ‘공산주의 도덕’ ‘음악’ ‘체육’ ‘영어’ ‘로어’ ‘한문’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혁명역사’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도 사회주의의 우월성, 애국주의, 공산주의, 반미, 반제, 반괴뢰, 반종교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도록 교과서 내용과 강의안 자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실력 있는 인재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4월부터는 선택과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잘 사용할 수 있는 산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새 시대에 맞게 교육 사업을 개선하는데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최근 들어 북한은 교육체제와 내용 개편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교과 내용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실력 있는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북한 당국은 김진경 과기대 총장에게 평양에 과학기술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허락을 했습니다. 그 후 2002년 6월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6년 8월 말에 건설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고 빠르면 오는 10월에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의 배경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진다면 그곳에 들어가 헌신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교육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거짓된 세뇌교육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여 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활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왕상 18:37-3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

시는 내 비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호 2:16-17).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을 하나 님처럼 섬겨야 한다고 세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학교(초등학교) 1학년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 원수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 등과 같은 교과서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도록 세뇌합니다. 어릴 때부터 새겨진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제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을 태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교육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쓴 뿌리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비방하며 공격하게 만드는 것 대신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소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

“미쁘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북한 교과서에는 남한을 ‘미제 식민지’, ‘괴뢰도당’, ‘반동소굴’ 이라 표현하고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원썩’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인민학교 일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승냥이놈 땅크를 처음에 6대 까부셨습니다. 다음에 2대 까부셨습니다. 두 번에 몇 대 까부셨습니까?” 이러한 교육 때문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국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미국을 비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교육 내용이 바뀔수록 한국과 미국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교사들을 구원하시고 학자의 귀와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 내에 전파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 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 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 50:4).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스 7:10).

한 탈북 소년의 말에 의하면 당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학교 내에서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가르치며 장군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김일성을 전파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학교 내에

서 김일성과 김정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인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 전문가들이 더 이상 인간을 찬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심령과 학자의 귀와 혀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교실에서 진화론과 무신론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1, 27).

“너는 청년의 때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몇몇 북한 청소년들에게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 말하다가 코가 조금 납작하고 약간 입술이 두툼한 아이에게 장난 섞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원숭이야. 너 얼굴 진짜 원숭이 같다.” 그러자 그 아이는 화를 내며 “나 원숭이 아니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만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땅 가운데

서 진화론과 무신론적인 교육이 깨어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한 사람들이 믿고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5일: 교육(2)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는 북한 교육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중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기근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안에서 보고 경험하셨던 탈북자 어머니가 쓴 다음의 글을 보게 되면 많은 북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북한의 교육체제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11년제 무상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한 나라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77년 김일성이 내놓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레제’와 함께 학생교육과 성인교육을 위시하여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것이 북한 교육이 갖는 의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는 북한 사람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도록 양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은 다섯 살 난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70세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대한 철저한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장차 조선을 떠메고 나갈 청소년들과 수많은 교육 대상자들은 허울뿐인 교육체제 속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학문을 배우지 못한 채 캄캄한 문맹의 길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허위와 위선으로 한창 배울 나이의 학교 학생들을 이른 봄철부터 늦은 가을까지 강냉이 심기와 벼모내기, 풀베기, 가을걷이 등 온갖 농사일에 동원시키고 있으며 새 학기가 돌아와도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의 론리를 깨어보고자 풀죽도 못 먹고 학교에 온 13세의 소년이 수업 도중에 영양실조와 허기증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사실은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량반”이라는 기막힌 생체본능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키운다는 북한 사회에서 그리고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라는 배움의 열정을 지녔던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학교에도 못가고 먹을 것을 찾아서 산으로 강으로 헤매는 모습은 북한 사회의 희망과 다음 세기를 가늠케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많은 아이들이 십대를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굶하기와 나누기 방식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구구단표도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정 환경과 식량사정 때문에 인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

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1990년 초부터 심각해진 식량난 때문에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교원이 동시에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교원이 출근하였다 해도 30명 중 절반도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래(내)일 누가 선생님의 점심을 챙겨올 학생이 있느냐.”고 자신의 한 끼 식사를 요청하고 있으니 인류가 걸어온 력사 속에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인간육성의 사명자인 교원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실은 유명, 무명한 북한의 교육체제에서만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의 교육은 완전히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1980년 김일성의 후계리론과 더불어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북한의 교육이 김정일의 개인 역할과 수립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의 교육은 김일성의 우상의 논리를 깨어 버리고 하나 뿐인 선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진정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북한의 교육 속에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님의 말씀과 하나 뿐인 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 내려 가까운 앞날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의식주 문제의 해결로 인해서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이 양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지적인 양식을 먹고 먹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마 6:2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 4:4).

중국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보면 의식주 문제가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음식을 찾아 헤매다 중국까지 오게 되어 그들의 지적 수준이 많이 뒤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소년은 12살 될 때까지 덧셈과 곱셈을 못했고 심지어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탈북 소년의 외침이 기억납니다. “제발 배우고 싶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먹을 것을 주셔서 교사들이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교육이 김일성, 김정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4-7).

“예수께서 가리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북한의 교육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불타는 집에서도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초상화를 가지고 나오면 영웅이 됩니다. 한국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있다가 북한으로 간 리인모씨는 북한에서 영웅입니다. 그가 쓴 글을 읽으면 김일성을 향한 순결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가 사랑하는 한 남자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에게

게 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육이 더 이상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교육계 가운데 깨어져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묶어주시고 쫓아주소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이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북한의 교육계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과 영이 있습니다.

1. 우상숭배(신이 되어버린 김일성과 김정일)
2. 주체사상(통치수단이 되어버린 종교적 사상)
3. 진화론과 무신론(하나님의 존재 부인)
4. 거짓(왜곡된 역사, 왜곡된 사실들, 김일성장군이 해방을 시켰다)
5. 비판(자아비판, 생활총화, 미국 승량이, 한국 괴뢰도당)
6. 미움(적국을 향한 잔인함과 비정함)
7. 무관심(의식주 문제로 모든 관심이 배움과 멀어짐, 배우고 싶어

도 배울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의 교육계 가운데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 버리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견고한 진)을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읍시다.

6일: 정치 · 군사(1)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암 5:24)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 군사체제, 주민 생활 등 모든 분야에 서 가장 중요한 지도 이념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철학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조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주체사상이 도리어 북한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에는 “혁명적 수령관”이란 중요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적 수령관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자주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핵심에는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수령 중심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한 인간이 전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 독재 정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86년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 론을 주체사상에 첨부함으로써 김일성이 인민

에게 영생 즉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아버이 수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으로 북한은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확고한 교리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후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이란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을 3번 했는데 그 숫자가 점차 줄어 1999~2001년에는 주체사상이란 용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이 새로운 실천적 하위 통치이념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 이론들은 북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일곱 가지 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 땅 가운데 김정일의 개인 독재체제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루 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수 6:20-21).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암 5:24).

1998년 8월에는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에 철관을 팔아 강냉이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간부 8명이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여자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총살하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 항의하다가 구둑발에 채이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로 3명의 저격수의 총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른 이에게 주거나 김정일과 정부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죽거나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개인 독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의 하수같이” 흐르기를 요구하십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김정일의 독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루 빨리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 하시느니라”(잠 21:1).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증혹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 1:13).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아픔과 슬픔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구조물품과 식량들도 자기들의 정치 목적으로 사용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

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김정일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김정일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기 가족이 희생된 한 북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김정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김정일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김정일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김정일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 믿으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김정일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김정일과 지도자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3.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망과 어둠에 갇혀 있는 북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9-10)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사 44:28).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란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에도 큰 기여를 해서 독일 최고 훈장인 '대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북한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북한에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나 고르바초프와 같은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북한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4. 북한의 황폐된 곳과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

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사 61:1-4).

지금 북한은 영적, 물질적, 도덕적으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도덕도 정치도, 심지어는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많은 가정도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황폐케 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유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북한이 회복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북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와 에스라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황폐된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일: 정치 · 군사(2)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9-10)

다음에 나오는 글은 탈북자 어머니가 북한에서 북한의 정치에 대해 보고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북한이 어떻게, 어떠한 이념으로 북한국민들을 다스리는지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가 개인독재정치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김일성의 독재정치는 아들인 김정일의 폭군정치로 이어져 오늘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도저히 상상치 못할 기막힌 정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은 급격히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이를 개선할 아무런 묘책이 없었던 김정일은 최근에 들어 영(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수령 결사 옹위정신이라는 소위 “붉은 기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기사상은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라는 ‘생명포고령’과도 같은 것으로써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들에게 한층 더 두려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가장 큰 력사적

사건으로 1996년 10월부터 다음 해인 97년 3월까지 진행된 공개총살과 현장총살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총 6개월에 걸친 총살사건은 평성, 순천, 회창, 성천, 무산 등 공화국의 곳곳에서 진행되었는데 총살된 사람들의 죄명은 하나같이 '민족반역자'였고 남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착취 계급인 지주자본가처럼 허리띠를 풀어놓고 기름진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목격한 총살사건 중에는 5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의 꿈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안겨오는 치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량강도 혜산시 역구내에서 총살된 한 아기 엄마의 모습입니다. 황해도 어느 농촌에서 왔다는 그 아기 엄마는 강냉이 속치에 총알 30알을 넣어 가지고 와서 중국 사람에게 팔려고 했는데 그만 사복을 한 역전 안전원에게 짐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아기 엄마가 총알이 들어 있는 기저귀 가방을 집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하자 아기엄마의 뒤쫓던 안전원은 무자비하게 총을 쏘았습니다. 총에 맞은 아기엄마를 아기를 업은 채로 역 구내 시멘트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설마 총을 쏘겠느냐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서 뛰어가 보니 아기엄마는 총알이 머리를 뚫고 나가 이미 숨이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엄마의 등에 업혀 있는 아기는 총소리에 놀라서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고 아기의 온 얼굴은 엄마의 머리 피가 튀기여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엄마의 잔등에서 아기를 끄집어낼 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 같은 사건, 이 같은 총살을 북한은 '현장총살'이라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이 같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봉건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아기엄마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은 총살을 면하였건만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는 북한 사회에서 이렇듯 사람의 생명을 순간에 앗아가고 있으니 허울좋은 인덕정치와 광폭정치의 베일 속에 힘없고 순진한 인민들은 그 귀한 생명을 보장받을 길 없어 죽은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오죽했으면 주체사상의 대부였던 황장엽 비서를 비롯한 중앙당고위급 간부까지 그리고 외교관들까지도 북한을 뛰쳐 나와 망명을 신청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 벼 뿌리와 칩 뿌리로 대용 식량을 해결하던 인민들에게 강냉이 한 이삭이라도 흠치는 자에게는 현장에서 총을 쏘아도 무방하다는 김정일의 식량포고령이 하달되었고, 더 이상 앓아서 굶어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운 린접 나라 중국에로의 탈북의 길에 너도나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김정일은 망명한 인사들과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파쇼적이며 독재적인 정치체제가 그 밑바닥까지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자 당황하여 “내 나라 사람은 내가 먹여 살린다.”며 중국과 소련(러시아)에 피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악착스럽게 붙잡아 내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협력과 북조선 특무들에 의하여 북조선으로 붙들려간 탈북자의 수가 98년 겨울만 해도 무려 3천여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추운 엄동설한에 신발과 양말도 벗기운 채 쫓겨 얼면서 왜 사회주의를 버리고 탈북했는가의 물음에 “나는 사회와 인민 앞에 배반자다.”

는 풋말을 들고 이리저리로 끌려 다니며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차라리 만행이었기에 듣는 사람 모두를 눈물이 아닌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조국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정든 고향과 일가친척을 등지고 산 설고 물 설은 남의 나라 이국땅에 피난의 발길을 향했습니까? 국가에서 최소한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이라도 공급했다라면 그들은 결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력시는 새 옷처럼 단장할 수도 헌옷처럼 벗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통치자들은 기울어져 가는 자기들의 권력체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내부로는 총칼로써 외부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공화국”이라고 선전하는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포로수용소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있던 전 종군기자 고령의 이인모 노인을 감화시켜 김정일의 정치와 그 체제를 찬양하는 이른바 ‘사랑의 화신’, ‘신념의 화신’이란 노래를 작시했지만 수백만 인민을 무더기로 굶겨 죽이고 살 길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케 만든 김정일을 어느 누가 사랑의 화신이며 신념의 화신이라 불러준단 말입니까?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을 ‘죽 장군’이라고 불렀으며 김정일을 가리켜 ‘풀 장군’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인민의 저주와 비난을 받는 북한의 개인독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북한 인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루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너짐과 같이 이제 북한의 독재정권도 봄날의 눈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을 읽다가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개처형 현장이 몰래 카메라에 담겨져서 2005년 3월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북한의 회령지역을 비롯한 국경지역에 비상이 걸려서 색출작업에 들어갔고 중국 국경지역에는 북한의 비밀요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 정권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참 실상을 조금이나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의 정치 때문에 희생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13:21-22).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리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0만 명 정도 되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집 머슴으로 일하고 어떤 이는 구걸하며 다니고, 어떤 사람은 팔려 다니는 신세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글에는 그러한 삶의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이 뭔지 알기도 전에 성(sex) 풀이 도구로 태어난 것만 같은 내 운명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하는 나의 짐승과 같은 생활이 저주스러워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제자양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탈북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 북한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소서.

“가리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 4:10-12).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리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삼하 21:1).

6·25 전쟁과 교인들의 처형, 정치 사상범들의 숙청 등으로 북한의 역사는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잘못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 없는 피가 흘러지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삼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북한은 피 흘린 죄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더 저주를 받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얼룩진 피의 역사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합니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울 자손 일곱의 목숨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목숨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북한정권이 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지은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흘리셨던 붉은 피로써 그 모든 죄를 덮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3. 북한의 정치계 가운데서 깨어져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묶어주시고 쫓아주소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북한의 정치와 군사계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과 영이 있습니다.

1. 우상숭배(하나님이 되어버린 김일성과 김정일, 그들을 위한 총폭탄정신)
2. 주체사상(통치 수단이 되어버린 종교적 사상)
3. 선군정치(군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김정일의 통치이념, 국민들은 굶어 죽더라도 군사력을 더 강화함)
4. 폭력과 잔인함(정치계를 위협하는 자들과 기독교인을 숙청함, 현장사살, 공개처형)
5. 두려움과 공포(공개처형과 숙청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을 향해 갖게 되는 마음)
6. 거짓과 탐욕(“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안전부는 안전하게, 당원은 당당하게…….”)
7. 쓴 뿌리(정치계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가진 상처, 미움, 숨겨진 분노)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의 정치계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또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귀신들을 쫓아 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견고한 진)을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마귀를 쫓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읍시다.

8일: 언론(1)

“야훼께서 외치시는 소리, 땅 끝까지 퍼진다. 수도 시온에게 일러라. “너를 구원 하실 이가 오신다.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사 62:11)

북한의 모든 방송수단과 언론매체들은 당과 정무원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민영방송이나 언론매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중앙에 중앙방송국과 평양방송국, 원산, 개성, 남포, 사리원, 함흥 등 10여 곳에 지방방송국이 있습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북한 전 지역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조선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과 평양 부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볼 수 있는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교육 오락용 방송인 ‘교육문화 텔레비전 방송’ 등 세 개가 있습니다. 북한의 중요 신문으로는 ‘노동신문’ ‘민주조선’ ‘노동청년’ 등 중앙지 3개와 각 도별 지방지 10개의 일간지가 있으며 영,불어판 ‘평양타임즈’와 ‘인민군신문’ 등 특수지가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로는 ‘근로자’ ‘로동자’ ‘남조선문제’와 종합교양지인 ‘천리마’ 그리고 대외선전용인 ‘Korea Today’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등이 있습니다. 이들 언론 매체들은 당을 위해 봉사하며 대중동원과 선전 선동 매체로서의 기능이 주된 임무입니다. 당이 철저하게 언론매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당이 원하는 방송만을 시청하며 우물 안의 개구리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의 언론계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수많은 거짓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찌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사 44:6-8).

중국에 넘어온 지 2년 정도 된 아이에게 북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김일성, 김정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김정일과 당은 언론을 통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 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언론, 출판의 자유가 북한 땅에 실현되게 하셔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사 40:3, 9).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껏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마 10:27).

2000년도에는 한 그리스도인이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한 후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는 복음을 몰래 전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산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자들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세레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 언론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짓과 왜곡의 영이 떠나가게 하셔서 북한 땅에 진리가 선포되게 하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

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3-14).

북한은 거짓으로 뿔뿔 뭉쳐진 사회입니다. 북한의 언론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진리를 북한 주민에게 왜곡해서 보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김일성이 북한을 해방했고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침략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일을 높이기 위해 독립운동의 중요한 장소였던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뭉쳐진 북한 언론계의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영들이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귀신의 영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북한의 언론을 통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 북한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

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중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언론이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언론을 통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위성 등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9일: 언론(2)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출 9:16)

다음에 나오는 글은 새터민 어머니께서 북한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 보고 경험하신 내용들을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을 읽게 되시면 사탄이 어떻게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리념과 정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진실과 진리가 생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언론과 출판물은 오직 주체 사상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의 시각으로 해석되며 정리되어 있어 인민 스스로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원리가 박탈되어 있으며 따라서 신속성과 객관성은 그림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주된 언론으로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로동청년 등 많은 신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모든 신문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주요 기능은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 자적 역할을 하며 주체사상 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과 특히 외부세계의 정보를 차단시키고 북한의 실상을 인민들에게 철저히 위장하는 일입니다. 그 신문은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나라들을 끊임없이 비방하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인민들에게 정치적, 계급적 야욕을 불러일으

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문화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보다 문화가 발전한 한국이나 미국의 그 어떤 사실적인 측면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한의 시위투쟁장면(데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가 북한 인민들 속에서 남한 사회에 갖고 있던 자기들의 인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알고 다시는 남한 사회에 대한 화면이나 사실적 기사들을 일체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사실적 실례로 남한 광주 대학생폭동을 내용으로 한 〈님을 위한 교향시〉를 북한에서 촬영하였습니다. 비교적 한국의 실정을 잘 방영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북한의 영화예술이 대전성기를 맞이했다고 외치던 1980년 후반기에 만들어졌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텔레비전이 아닌 영화 필름으로 딱 한번 선을 보이고는 아직까지 방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에서 본 한국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북한의 방직기술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질 좋은 옷감의 옷을 입었으며 한국의 거리와 건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음을 북한 인민들이 영화 장면을 통하여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알고 있으며 병이 나도 돈이 없어 약한 알 못 사먹는 썩어빠진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라디오와 방송매체는 당의 목소리라는 인식 속에 북한의 모든 가정들로부터 청취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1990년부터는 아무리 좋은 선전과 선동의 나팔을 불어도 누구하

나 귀맛 좋게 들어주는 청취자가 없고 오히려 북한의 가정들로부터 추방되어 오물장이나 쓰레기장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매체물은 식량위기와 경제위기로 하여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텔레비전은 10가정당 1가정 꼴로 있으며 라디오 방송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언론이야말로 사회와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출판보도 기관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선전 작업에만 몰두하고 쓰임 받는 도구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따라서 언론을 통하여 그와 관련한 내부 사회와 외부 사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인식을 갖고자 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 인민들에게 언론의 자유화, 민주화가 실현된 한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의 사정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알 권리를 가졌음에도 까맣게 모르고 살아온 자기들의 권리 없음을 깨닫고 북한체제와 북한 정부를 당장에 뒤집어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북한 인민들은 아직까지도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체제 속에서 우상의 발을 빼지 못한 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둔하고 무지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울 수는 없으며 력사는 살아서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한숨과 절망에 갇혀 있던 북한의 2천 3백만 동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력사속에 눈부신 자유세계의 새 아침을 온 세상에 반포할 그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신앙서적, 그리고 전도지를 통해 예수님이 북한 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조선에 전해 준 사람은 오자마자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조선병사인 박춘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주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씨앗이 되어 박춘권은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고 그 성경을 뜯어 벽지로 썼던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장대현교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의 영혼을 성경책, 신앙서적 그리고 전도지를 통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과 신앙서적, 전도지 등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건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을 위해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성경책이나 신앙서적 그리고 전도지를 전해 줄 사람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성경책, 신앙서적, 전도지 등을 통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기독교 신문사, 기독교 방송국, 그리고 기독교 출판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라 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합 3:2).

“두 사람이 늙기 전에 리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수 2:8-10).

지금 북한의 모든 출판물과 방송은 김일성 부자와 사단의 편에서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이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문사, 기독교 방송국 그리고 출판사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박국 선지자와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의 언론계 가운데서 깨어져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묶어주시고 쫓아주소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 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북한의 언론계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과 영이 있습니다.

1. 이상승배(하나님이 되어버린 김일성과 김정일, 언론의 중심은 김정일과 그의 방침)
2. 주체사상(통치수단이 되어버린 종교적 사상)
3. 거짓과 왜곡(김정일의 이상승배와 독재정치를 돕기 위해 진실을

왜곡함)

4. 고립과 통제(북한사회를 외부세계와 단절시키고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정보를 통제함)
5. 두려움과 공포(북한체제를 거슬리는 진리를 말하면 숙청당함, 외부의 방송을 들으면 처벌 받음)
6. 적대 국가를 향한 증오, 비판, 쓴 뿌리(한국전쟁 기간 중에 겪은 고통 때문에 생긴 적개심)
7. 호전성, 폭력성(언론을 통해서 무력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혁명사업을 강조함, “출판물은 글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로 규정함)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의 언론계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또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귀신들을 쫓아 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견고한 진)을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마귀를 쫓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읍시다.

10일: 문화예술 · 체육(1)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 43:21)

북한의 문화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창작과 보급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전문 예술인들을 일정한 조직 안에서 통제하고 창작 방향을 제시하며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열 과정을 통해 수정하며 국가 조직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합니다.

검열 과정에서는 일곱 가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2. 국가 및 군사비밀을 노출시킨 부분이 없는가?
3.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가?
4. 대중의 공산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5. 작품 안에서 전투성, 혁명성, 계급성 등이 충분히 발양되어 있는가?
6. 작품으로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졸렬하지 않는가?
7. 단어 및 어휘 표현이 정확한가?

북한 문화예술에 대해 이같이 엄격한 관리를 하는 이유는 북한의 문

화예술이 당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북한사람들의 사상오염을 철저히 방지하고 당의 사상을 문화예술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예술인은 엄격한 과정을 통과한 사상적인 무장이 되어있는 사람들이며 사상전투의 최전방에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당 정책을 전달하는 전사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 문화예술의 주제는 반일, 혁명투쟁, 민족주의였습니다. 그 후 1960년대에는 김일성 반대파의 숙청작업이 완료되면서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도부터 1980년 중반까지는 주체사상의 완성기인데 북한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김일성 1인 중심의 혁명전통인 주체사상을 북한주민들의 생각 속에 강하게 심어놓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국가 이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개방의 압력을 거부하는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문화예술과 체육계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선전과 선동에 이

용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시 150:3-5).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북한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김일성부자를 높이는 곡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음악600곡》에 실린 노래 중에는 확실하게 ‘김일성’, ‘수령님’ 등의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가 84곡이나 되며 이들을 음으로 양으로 찬양하는 노래까지 합치면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있었을 때 공산국가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훨씬 지난 3월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많이 들던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그 찬양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북한 사람들이 우상을 찬양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예술계가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2. 정치 사상과 우상 숭배 때문에 억눌렸던 북한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이 문화계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 40:3).

북한의 문예, 예술 분야는 김정일에 의해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사용됨으로 인해 정치사상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북한의 정치사상적인 울타리를 벗어난 예술을 무대에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능력은 억압당하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창조적인 예술에 대해 강조했던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이며 작곡가인 마이클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곡가로서 단언하는 바 가장 큰 격려의 순간은, 곧 잊혀질 순위차트에 내 노래가 오를 때나 상을 받을 때가 아니고, 갓 만들어진 새 노래를 부르는 때다. 이제껏 누구도 불러 보지 않은 악보를 연주한다는 것, 그러면서 듣는 이에게, 그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느낌을 주게 될까 기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나눈다는 것의 의미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다윗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적인 새 찬양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암을 세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한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성막의 예술품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북한의 예술, 문화계 가운데 억눌림 대신에 자유와 창조의 영이 부어지

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화와 예술을 구속하셔서 북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창조적인 능력이 마음껏 드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북한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하나님을 향한 새노래가 북한 땅 전역에 울려 퍼지도록 기도합니다.

3.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북한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하거나 놀리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 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명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지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지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대하 20:15~26).

탈북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한 탈북자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고 한 탈북 소년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

양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북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실 수 있게 찬양과 경배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찬양 사역자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그들 마음속에 자리잡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귀신들이 쫓겨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4. 북한 사람들의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북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 22:3).

지금 북한은 예술을 통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술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예술이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찬양과 춤과 악기를 통해서 김일성부자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일: 문화예술 · 체육(2)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시 45:17)

다음은 탈북 어머니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의 문화, 예술부문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북한정부가 어떻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우상화작업을 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문화, 예술 부문은 사회의 그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가장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인기를 얻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 단체가 있는데 ‘보천보 전악단’ 과 ‘왕재산 경음악단’ 입니다.

북한의 예술단의 규모와 특수성을 볼 때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북한 인민들에게 얼마든지 충분한 정서를 심어줄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예술단은 인간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찬양하는 정치사상적 무기로서의 최전선 역할에 예술의 최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위 예술의 천재이며 문예리론의 대가로 불리우는 김정일은 1985년부터 북한의 문예 · 예술부문을 단독으로 틀어 쥐었으며 그 후로 북한의

문화 예술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대량의 음악들이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을 통하여 무수하게 창작 보급되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면
이 가슴 한없이 젖어드네
우리를 손잡아 키워주신
그 사랑 잊을 수 없네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꿈에도 정답게 불러보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이 노래는 김정일의 개인 기쁨조인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그 품 떠나 못살아>>의 가사입니다. 밀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최고 권력자를 흠모하며 신뢰하는 북한 인민들의 충실한 마음을 너무도 적절하게 잘 표현한 이 노래는 보급되는 첫날부터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옹근 6년간의 긴 세월을 걸쳐서도 끝나지 않는 굶주림의 강행군은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보천보 전자악단을 비롯한 여러 예술계의 노래들을 더 이상 찬미케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로써 북한의 음악, 예술계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철저한 비난과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설 명절을 맞으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성대한 예술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도 평양시 소년궁전 학생들의 설맞

이 공연은 너무도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귀여운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이 사실과 진실성에 모두 부합되어서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북한의 예술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기쁨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국의 곳곳마다에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는 북한의 현실은 일년에 한번 뿐인 설 명절날조차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설움 때문에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더더욱 예술의 허구성과 중요감을 자각하게 합니다. 예로부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는데 이 말의 뜻을 절감시켜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1997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날을 맞이하여 북한은 새로 나온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상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3살짜리 어린애가 영화에서 떡먹는 장면을 보고 불현듯 울음보를 터뜨리며 나도 떡을 먹고 싶다고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당황한 가족들은 급기야 텔레비전을 꺼버리며 “저건 예술이야. 진짜가 아니야.”라며 3살짜리 어린애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예술의 리론으로 강박적인 울음을 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철없는 어린애에게만 전달되는 느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닭 잡고 잔치하는 장면만 나오면 “저 배우 영화 찍으면서 닭고기 한번 실컷 먹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그림의 떡과 같은 비현실적인 예술에 대해 반감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니 영화와 예술이 주장하는 기본 핵심은 간 곳 없고 예술은 다 거짓이며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무식한 문예론리만 남아 버렸습니다.

북한의 체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시의 체육거리에는 대중체육을 장려한다는 체육관이 준비하지만 굶고 있는 인민들은 수십억을 들여 투자해 건설한 체육관에서 리상적인 운동 한 번 못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줌도 못되는 체육인들마저도 국가의 유명한 인민체육인이 아니고서는 일반 체육인들이나 평민들과 별다름이 없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떨칠 수 없는 체육계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문화예술과 체육계의 상황은 절대 다수의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기쁨도 줄 수 없는 거짓된 것이며 오직 김일성, 김정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상집단으로서 과거 봉건시대의 시녀집단들처럼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하나의 고급 예술 단체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문화예술이 인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권력체제를 계속 공고히 유지하려는 김정일의 정치적 안목이 북한의 문화예술부문을 선전과 선동의 시각으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의 문화예술은 거짓과 위선의 아비 사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청신한 기독교의 문화로 하루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때는 봄
하루는 아침
아침은 일곱 시
언덕엔 이슬이 진주지고
종달새 하늘에 날고
달팽이 가시덩굴에 기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이 평화롭네

지금 북한의 문화예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현재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왕하 3:15-16).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회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으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1-12).

북한의 지도자들은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북한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폐에까지 영화 주인공들의 모습을 넣습니다. 북한 예술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김정일 부자를 위한 충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술이란 도구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탈북자들을 음악과 영화를 통해서 자주 만지십니다. 한 탈북자는 종교 영화를 보다가 너무나 감동 받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탈북자들은 찬양시간에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문고를 탈 때 엘리사를 감동시키셨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음악, 영화, 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예술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문고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북한의 예술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2. 기독교 문화를 북한 가운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을 세워주소서.

“여호와의 케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케를 메어 오니라”(삼하 6:13~15).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대상 6:31~32).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대상 9:33).

한 탈북 소녀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젠 날엔 망망한 바다의 쪽배처럼 떠다니던 인생,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값없이 살던 제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마음까지 먹었던 제 자신, 어쩌면 이 지나온 괴로움과 슬픔, 외로움은 다 꿈만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제게 위로를 주시고 부모에 대한 원망 대신에 부모께 감사하게 하셨고 슬펐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웃음이 없었던 제게 늘 웃음만을 안겨 주셨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앞날에 대한 새 소망을 주셨어요. 저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는 것이예요. 저는 찬양으로 북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또 이런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꼭 이루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탈북 소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찬양사역자들과 예술인과 체육인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은 지금도 그러한 일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예술인과 체육인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의 문화 예술계와 체육계 가운데서 깨어져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묶어 주시고 쫓아주소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파하리라”(약 4:7)

북한의 예술계와 체육계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1. 우상숭배(하나님이 되어버린 김일성과 김정일)
2. 주체사상(통치수단이 되어버린 종교적 사상)
3. 통제(창조능력의 파괴)
4. 억압(예술과 체육을 혁명사상 안에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함)
5. 폭력과 호전성(수많은 예술물들이 수령과 당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사람들이 수령과 당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킴)
6. 거짓과 위선(김정일의 독재정치를 돕기 위해 진실을 왜곡함)
7.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예술을 통해서 수령과 당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가르침, 수령과 당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시함)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의 문화예술 및 체육계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또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귀신들을 쫓아 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견고

한 진)을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읍시다.

12일: 경제(과학과 기술)(1)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마 6:24)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북한의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합니다. 1998년 개정헌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운항 등' 나라의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사회협동 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과 기업소 등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 소유물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는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 소유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므로 중앙당국에 의해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부조직들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통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가운데 과중한 국방비 지출, 무리한 핵무기 개발,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 중단, 무리한 우상화 작업과 재해 등의 문제로

1993년에는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체제를 그들만의 독특한 자본주의와 개방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10월 김정일은 당의 경제 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의 실리를 얻어 내기 위해서 경제체제를 혁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8개월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2년에는 대대적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모든 가격을 현실화 하면서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 원칙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는 등 실용주의적 차원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험을 무릅 쓰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중국 내에 세워지는 수많은 북한 식당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수많은 북한 식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도 한국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 북한 식당들을 세웠습니다. 북한 식당에 있는 수많은 아가씨들은 한국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농담도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중국과의 비자 협정문제가 있어서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는 위험 가운데 있고 몇몇 식당들은 임대한다고 쓰여져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은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개방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현대아산에 의해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사업이 이제는 전력, 통신, 금융 등 인프라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그곳에서 이미 물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5월에 북한에서는 삼성에 비공식적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 참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중국으로 수많은 사

업가들이 들어간 것과 같이 북한으로 많은 경제인들이 들어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주체사상으로 닫힌 경제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가들과 사람들이 북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소서.

“문들이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이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이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이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시 24:7-10).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봉쇄되었던 북한이 경제 위기 때문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업가들과 사람들이 북한의 열려진 경제의 문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경제의 문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주민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19).

북한의 배급제가 붕괴되어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장사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자 북한 사람들의 의식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탈북자들 가운데에도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의 은혜를 모르고 그 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연길에서는 심지어 돈을 받고 사람을 죽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북한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2001년 9월 7일자 신문에는 “‘노동당 입당은 소용없다. 돈이면 최고다’는 생각은 물론이고 전 주민이 ‘장사에 미쳐 있다.’고 보일 정도로 경제 우선주의가 철옹성과 같은 북한의 정치 장벽에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현재 북한은 외화 벌이에 미쳐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찌면 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일 전과 통일 이후에라도 경제우선주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 사상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경제인들 가운데에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1-3).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래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욥 31:16-20).

북한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중국에 건너온 한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내 이웃 중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또 한 탈북 소년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던 마리아와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읍처럼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부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북한을 물질로써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과학과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리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이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출 31:1-6).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왕상 7:13-14, 40).

북한의 모든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은 김정일의 우상화(동상과 건물)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정교한 기술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

령과 지혜를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브살레, 오홀리압 그리고 히람처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을 전 세계와 한국과 북한에 있는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가득 차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3일: 경제(과학과 기술)(2)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고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6)

다음에 나오는 글은 탈북 어머니께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북한 안에서도 잘 살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경제난 때문에 아직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북한의 경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식량과 원료와 외환의 절대부족으로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소련과 동유럽이 해체되면서 북한의 대외 교역체제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북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1996년의 대홍수와 1997년의 가뭄은 북한의 경제, 특히 식량 사정을 최악으로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공업 가동률은 10%도 못되며 그나마 중소기업은 거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과 그로 인한 식량 사정은 전력공업을 원만히 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부문에 막대한 영

향을 미쳤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열차가 도중에서 멎거나 혹은 하루 이틀씩 운행을 못하는 상황은 이제 북한에서 지극히 자연스런 일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 사정은 또한 민간인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살면서 인간 문명과 물질문화가 락후했던 구석기 시대의 실제 경험을 가장 폭넓고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했습니다. 지난 50년 간 북한을 통치했던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기국에 이밥(쌀밥)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생의 념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장 반세기 동안 추구하던 김일성의 념원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끝나버렸고 강냉이밥에 된장국도 못 먹은 인민들은 무더기로 굶어죽고 있으니 비단옷에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헐벗고 방황치만 말았으면 하는 것이 북한 인민들의 최대의 소원이요 민족의 념원입니다. 오늘날 북한 인민들의 헐벗고 굶주린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통로를 걸쳐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도 갖추지 못하고 심지어 신발, 양말, 뽀빠(팬티)같은 지극히 초보적인 생활용품도 준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의 현실을 다만 경제위기, 경제공황이라는 두 용어에만 결부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에서 입고 쓰고 사는 문제는 너무도 아름찬(허황된) 바람 같지만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수많은 방직공장들

과 직물공장, 옷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남자들은 변변한 런닝그 하나 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녀성들은 속옷(팬티)마저도 기워 입거나 아예 입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신발이며 양말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8억 9천만 불이라는 경제를 김일성의 시신을 생존의 모습대로 영구 보존하는 묘안 속에 소비했습니다. 북한의 식량이 매해 2백만 톤씩 모자라는 것으로 볼 때 8억 9천만 불의 경제는 북한 인민들을 3년 동안 주리지 않고 먹일 수 있는 귀중한 량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사육과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수백 만 인민을 굶겨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는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체제가 무너질까 두려워 있지도 않은 북침위협을 조건으로 수많은 경제적 밀천을 전쟁 준비와 군사 장비물에 투자하고 있으니 북한의 경제위기는 범의 굴을 지나고 사자 굴에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한 가난한 아주머니가 자식들을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장사길에 올랐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빌린 돈으로 물건을 사서 운반하기 위해 기차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올랐는지라 기차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기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전원이 기차 위로 올라와서는 그 아주머니의 물건을 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빼앗기면 온 식구가 굶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해도 안전원이 들어주지 않자 그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악에 바쳐서 안전원을

끌어안으며 기차 위에 있는 고압선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튕겨나갔는데 아주머니는 목 쪽에 구멍이 생겨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안전원은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슬픈 일들이 경제 붕괴로 인해 수없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 한 탈북소년의 간증).

오늘날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김정일과 그 통치자들이 선전하는 외국의 봉쇄정책도 아니요, 전적으로 중세기적인 개인독재가 빚어낸 산물입니다. 있지도 않은 자립적 경제로선 밑에 외자도입을 폐쇄하고 자체의 생산력, 자국자원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김정일의 정치가 오늘날 북한의 경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탄광, 광산의 강철공장은 외형적인 건물만 서 있을 뿐 내부에 쓰이는 중요 기계와 부속품들은 이미 오래 전에 중국 밀수업자들의 손에 넘기워졌습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고의 절정에 올랐던 1997년도에는 북한의 가정치고 동, 철, 연, 아연, 뽕베지르를 팔아먹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난 유색금속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찌 북방뿐이겠습니까. 자강도와 신의주를 통해서도 그 량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니. 북한 당국에서는 이것을 막아보려고 공화국의 각 곳에서 총소리를 울리고 사상투쟁회를 조직하고 매 가정마다 <자백서>를 쓰게 했지만 당장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 됐으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힘은 김정일과 그 당국자들이 나라와 인민 앞에 저지른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었던 가정의 기쁨과 쓰러졌던 삶의 소망들이 북한의 경제 회복과 더불어 쌀독에서 인심 나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이 시대를 진정 감동케 하는 력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고 살 길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한 것임을 북한 주민이 깨닫고 회개케 하소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신 28:15-19).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신 30:17-18).

김일성이 죽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김일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표어 중에는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

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4월 15일은 김일성의 90번째 생일인데 북한은 2001년 8월 이전부터 거리에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들을 커다랗게 붙여 놓았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저주 받고 망하는 이유가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2. 물질, 과학, 기술을 우상 숭배와 전쟁을 위해 사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소서.

“벨사살이여…….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단 5:22-23, 30).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니라(창 11:4-9).

14일: 가정(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황장엽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쟁준비도 경제 파탄의 원인이다. 북한의 통계는 다 엉터리이다. 실제 군사비는 북한에서 공식 발표하는 수치의 3배나 된다. 지상보다 지하에 더 많이 건설하고 있다. 김일성 부자 신격화와 영구집권에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낭비했다. 95년도에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시신공전(금수산 기념공전)을 8억 9천만 달러를 들여 확대했다.” 북한 정부는 인민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과 김일성 부자를 높이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김일성의 묘와 동상, 기념 건물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 돈이 백성들에게 투자됐다면 아무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보다 자기들의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벨사살도 하나님께 드러져야 마땅한 예술품들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앞에 절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한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와 과학과 기술을 우상을 만들고 전쟁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경제(사업, 과학, 기술)계 가운데서 깨어져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역사했던 영들을 묶어주시고 쫓아주소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북한의 경제와 과학기술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1. 우상숭배(하나님이 되어버린 김일성과 김정일)
2. 주체사상(통치수단이 되어버린 종교적 사상, 자립경제주의)
3. 돈을 사랑하는 마음
4. 잔인함과 무정함(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
5. 거짓, 탐욕, 부정부패(돈을 벌기 위해 남을 속이고 옳지 않은 일을 함)
6. 음란(돈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함)
7. 호전성(군사력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과학기술)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경제계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또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귀신들을 쫓아 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견고한 진)을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마귀를 쫓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읍시다.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지워버리고 북한의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1946년 9월 1일에는 '가정의 혁명화' 정책을 통해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을 봉건사회의 잔재라고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40~1950년대에는 토지사유제 폐지와 재산상속제의 폐지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혁정책을 통해서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당의 통제단위로써 당적 과업을 촉진하는 매개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편 북한은 1946년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였는데 이 법령은 여성이 선거권과 취업권, 그리고 임금의 수취와 피교육권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성들을 남녀평등과 가정에서의 해방이라는 개혁으로 오히려 서서히 옴아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 미명하에 가혹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의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들 중심의 가족질서, 즉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

고 있기에 아내의 지위는 남편에 대해 종속적입니다. 즉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해 있으므로 남편은 가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니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북한에서의 결혼은 정치적,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간부나 앞으로 당원이 될 남자가 성분이 나쁜 여자와 결혼할 수 없고 보안상 비밀이 요구되는 군수공장 등의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타 지역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자녀 양육도 가정보다 국가가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후 30일부터 만 3세까지 국가의 보육료 부담하에 자녀들은 탁아소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또 만 4세가 되면 유아원으로 보내져 국가가 제도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탁아소에서는 집단주의 원칙과 공산주의적 인간을 기른다는 가치관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90년대의 경제난 이후 더 이상 국가의 자원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은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의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김일성, 김정일 대신에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아직 북한의 가정에는 성탄절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가정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북한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역사하소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엡 5:33).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북한의 남자들은 강한 힘으로 여자와 자녀들을 돌보기 보다는 주먹으로 그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옛 습관으로 부인을 때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들이 아내와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하나님께서 북한의 여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며 남편에게도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33).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의 여성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북한의 현실이 그들을 너무나도 거친 여자들로 만들었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쉽게 거짓말하고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는 여자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여성들을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일: 가정(2)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다음에 나오는 글은 탈북 어머니가 북한의 가정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수많은 북한의 가정들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아늑하고 따스한 이 공간을 우리는 사랑하며 소중하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식량공급을 받지 못한 북한 인민들은 오직 먹을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의식과 지배 속에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오늘날 일제식민지 시대 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북한 가정에서 세대주인(가장) 남편과 아버지가 흑심한 식량난과 경제 파산으로 인해서 원만한 직장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의 균형이 깨여지고 그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장한 체격과 독수리 같은 용기를 가진 북한의 수많은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빈집 지키는 멍멍

이가 되어버렸고 먹고 사는 가정의 일체 부담은 연약한 여성들의 어깨 위에 지워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니 온 밤을 새워서라도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칩뿌리를 캐고 쑥을 뜯어 오고, 그야말로 먹기 위한 전투를 매일 매일 힘겹게 치루어야 하는 북한의 여성들 속에서 여성으로서 있게 되는 생리마저도 끊어지는 비극 아닌 비극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싸움이 많다.”고 북한의 가정들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툼 끝에 헤어지는 부부가 헤아릴 수 없으니 역시 가난은 원쑤인가 봅니다. 혹심한 식량난은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들과 아버지들을 강도와 도적으로 만들었으며 순결했던 이 나라의 수많은 안해(아내)들과 어머니들을 빵 한 개에 몸을 팔고 10원짜리 지폐 한 장에 울고 웃는 정신병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겨우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두 살배기 어린 것이 어른들도 먹기 힘든 그 깔깔한 칩가루 죽을 먹고 먹은 것을 배설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울어대다 끝내는 숨을 거둔 이야기는 옛적에 있던 옛말이 아니라 힘없고 순진한 북한의 대개 가정들에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7년 5월 함경북도 무산에서 산모가 금방 낳은 갓난애를 끓여 먹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속담에 “사람이 사흘 굶으면 못할 짓이 없다.”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던 사람이 며칠 동안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웅근 5년 동안 강냉이밥 한번 실컷 못 먹고 식용기름 한 숟가락 못 먹어본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욱이 산모에게는 너무도 강한 육체적, 심리적 타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중국에 와서 슬프고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수록한다면 그것은 내 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개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통탄함이었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은 쪽정이 강냉이죽도 못 먹고 사는데 미물의 짐승인 개 돼지가 흰 밥 덩어리로 배를 채우고 있으니 지각 있는 사람치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같이 흰쌀로 밥을 지을 때면
나도 몰래 쏟아지는 눈물
눈물입니다.
내 건너선 이 땅은
기름진 흰 쌀밥을 먹고 사는데
내 떠나온 그 땅 내 어머니 계시는
그곳 북녘 땅은 어찌하여
어찌하여 쪽정이나 개죽도 못 먹고
굶주려야 합니까…….

이 딸은 기억합니다.
진눈까비 날리는 어느 겨울날
어디선가 구해오신
강냉이 한 되를 내려놓으며
그리도 태평스럽게 잠드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날마다 삶의 희열에 넘쳐
젊음의 웃음을 날리며 살건만
아! 어머니.
어머니는 어찌하여 그리도 늙으시고
병드셨단 말입니까?

어머니! 어머니!
끼마다 마주하는 흰쌀밥은
두고 온 당신 생각에
이 딸의 더운 눈물만을
더해줍니다.

이것이 어찌 탈북자 한 사람의 고충이며 눈물이겠습니까? 오늘날 북한의 모든 가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으며 그들의 신음소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은 그 어떤 인간적인 리론이나 힘으로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한과 북한 인민을 사랑하시며 또 이미 북한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기에 지금이야말로 믿는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북한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구름 낀 북한의 하늘가에 하나님의 평화가 울려 퍼질 그 날을 믿으

며 간절한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중보기도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이혼이나 식량난으로 인해 깨어지거나 헤어지는 가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소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5-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렘 29:11).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조사해 볼 때 비정상적인 가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이혼했거나 경제난 때문에 서로 헤어져서 행방을 모르는 경우 등등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평안과 장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북한의 가정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2. 남편이 없는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소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 68:5).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다”(시 146:9).

탈북하여 중국에서 양육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북한의 많은 가정이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헤어져서 가정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죽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이 되어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소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2~6).

한 보위부 사람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당에 보고 된 자료에 북한 사람의 250만 가량이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아마 2000년도 자료일 것임). 지금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가정이 더 이상 굶주리고 황폐화됨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 자신과 그 다음 세대 까지도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북한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가정 가운데 깨어져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들과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묶어주시고 쫓아주소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북한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다음과 같은 견고한 진들과 영이 있습니다.

1. 우상숭배(하나님이 되어버린 김일성과 김정일, 각 가정에 있는

초상화)

2. 주체사상(통치수단이 되어버린 종교적 사상)
3. 다툼과 폭력(구타로까지 이어지는 부부싸움, 남존여비 사상)
4. 상처와 쓴 뿌리(식량난 때문에 다투고 깨어진 가족들 가운데 있는 아픔)
5. 음란(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 가운데 자리 잡은 죄악성, 헤어진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외도, 생존하기 위해 몸을 바쳐야 하는 슬픈 현실)
6. 두려움(식량난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7. 분열과 분쟁(가난으로 인한 싸움, 이혼)

하나님께서서는 북한의 가정 가운데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 버리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견고한 진)을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읍시다.

(참고: 견고한 진 - 사단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혹은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사고체계나 권위 구조)

〈2부〉
북한 개요와 북한의 중요 도시들



평양시내 전경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암 5:24)

16일: 북한 개요(1)

“아름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찌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 46:3-4)

1. 국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김정일 국방위원장

2. 수도: 평양특별시

3. 지도자: 김정일

[생년월일] 1942년 2월 16일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

[출생지] 소련

[소속] 북한국방위원회 위원장

[경력] 노동당 입당(1961),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1990), 공화국 원수(1992), 국
방위원회 위원장

* 김일성

[생년월일] 1912년 4월 15일

[가족 사항] 아내 김정숙 사이에 아들 김정일



고(故) 김일성 주석

[경력] 공산주의청년동맹 가입, 중국공산당 입당, 45년 평양 귀환
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전 북한 국가주석, 1994
년 7월 8일 사망

4. 인구: 2,242만 8,000명(2001년)

인구 증가율은 1980년에 1.07%, 1990년에 1.12%로 1.0%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는 0.88%, 1999년에는 0.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4년 말부터 어려워진 식량난으로 출산은 감소하고 사망은 증가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970년 89.8, 80년 92.7, 1990년 94.8, 1999년 96.1로 여자가 많은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구 집중도를 보면 평양시 및 평안남북도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총 인구의 60% 정도가 서해안 평야지대에 집중해 있으며 인구 중 약 4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주요언어: 한국어

6. 종족: 한국인 99.8%, 중국인 0.2%

7. 면적: 12만 1000km²

8. 북한의 나라꽃: 목련(학명 Magnolia Sieboldii)

9. 연호: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연도를 표기하는데 이를 “주체연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2006년을 ‘2006년’이라고도 하지만 ‘주체 95년’으로도 표기합니다.

10. 북한의 명절

북한의 명절은 8대 국가 명절과 4대 민속 명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8대 국가 명절은 신정, 김일성 부자의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국제 노동절, 8·15 헌법절입니다. 민속 명절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나 그날을 전후로 한 일요일에 대신 노동을 해야 합니다.

11. 기후

4계절이 뚜렷하며 대륙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에 몹시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무덥습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은 대체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12. 국기: ‘남홍색 공화국 국기’ 또는 ‘홍람오각별기.’

‘남홍’이나 ‘홍남’은 남색(푸른색)과 붉은색을 의미하는데 북한 국기를 보면 횡으로 가운데가 붉은색이며, 위 아래로 희고 푸른색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흰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람오각별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3. 국가: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 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여
진리로 뭉쳐진 역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쫓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김일성과 김정일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북한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 6:10).

2.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 가지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1~13).

3. 북한 전역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소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17일: 북한 개요(2)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사 48:9)

14. 지리

1948년 9월 9일부터 6·25전쟁까지는 한반도 북위 38선 이북지역을 지배영역으로 두었다가 53년 7월 27일 휴정협정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지배영역으로 하여 통치해오고 있습니다.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1,360km, 러시아 연방과 16.5km에 걸쳐 닿아 있으며 동서해 두 해안선의 총 길이는 2,495km입니다. 북한은 북위 37~43도, 동경 124~13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도 단위 행정구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등 9개입니다. 그 외에는 평양 특별시와 남포와 개성직할시가 있으며 24개의 시와 146개의 군이 있습니다.

15. 정치

1910년~45년까지 북한은 일본의 점령 아래 있었습니다. 그 후 소련의 영향력 아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되었

다. 6·25전쟁과 휴전 협정을 거치는 동안 김일성 세력은 남로당계를 비롯한 여러 도전 세력들을 숙청하여 58년까지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며 장기간 집권 통치해 왔습니다. 김일성 세력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워 91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취임시켰으며 93년에는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소련 해체, 동유럽 민주화, 독일 통일 등 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북한의 정치체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16. 종교

북한의 교회들은 부흥의 발상지였습니다. 1945년 평양의 13%가 기독교인이었고 북한에는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으로 피난하거나 순교함으로써 교회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에서는 강력한 반종교정책이 추진되어 55년 무렵에는 북한의 모든 종교 단체와 종교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비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정교회>를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바티칸 교황청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짓는 등 대외적으로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방북 외국인 및 해외교포들에게 북한의 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A. 개신교: 오늘날 신자는 약 5,000명이며, 1983년 10월 <<신, 구약성서>>를 발간하였고 정식 교회당은 88년 건립된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두 곳이 있습니다. 교직자는 목사와 전도사 등 약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약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보며 20여 명의 목사가 목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 가톨릭: 약 150명의 신자가 있고 88년 10월에 평양에 최초로 장충성당이 세워졌다. 이곳에는 약 100여 명의 신자가 미사에 참석합니다.

C. 불교: 1만 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60여 개의 사찰과 300여 명의 승려가 있습니다.

D. 천도교: 약 1만 5,000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86년부터 천도교기념일의 하나인 천일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단체들에 소속된 교인들은 당의 훈련을 받은 선전용이며 종교를 이용해서 북한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공산정권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북한 사람들 중 다수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에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하교인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물들어 주시고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2. 북한의 수많은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3. 불교, 천도교, 미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 북한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소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겔 36:25~27).

18일: 평양특별시(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후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평양특별시(1)

1. 면적 : 3,194km²

2. 인구 : 120여 만 명 (2002년 추정)

3. 교통

북한의 모든 교통망이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있어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해운과 내륙수운 및 항공이 모두 발달했으며 주요 철도노선은 경의선, 평남선, 평덕선, 평나선이 있습니다.

4. 역사

평양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도시중의 하나였습니다. 일본도 해방 전까지 대륙침략의 기지로서 평양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일 한국전으로 인해 도시의 90%가 파괴되었었다.

김일성은 휴전 이후에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천리마운동을 비롯해 여러 경제개발을 이루어 평양과 그 주변을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974년 김정일이 정권을 물려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평양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5. 교육·문화·체육

평양특별시는 북한의 수도로서 30여 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그 밖에 70여 개의 전문학교와 500여 개의 고등중학교, 600여 개의 인민학교가 있습니다. 문화 시설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조선혁명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군중문화회관, 만수대예술극장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관람석 10만 석의 김일성경기장, 15만 석의 능라도 5·1경기장, 3만 석의 양각도경기장, 관람석 3만 석의 평양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6. 종교

평양은 1930년대 아시아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수도로 간주되던 곳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8천 명 이상의 한국 가톨릭 신자들과 신교도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열매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45년 북한에만 4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며, 평양 인구의 13%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개의 선전용 교회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김일성과 당을 위해 세워진 평양의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행 19:9-10).

2. 교통의 요충지인 평양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북한 전역과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도시로 세우소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찢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리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1-3).

3. 평양에 세워진 커다란 운동장에 북한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열리게 하소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을 1:14)

19일: 평양특별시(2)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아픔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사 60:15-16)

멀게만 느껴지던 평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다녀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들에게 딱딱한 표정만을 보이던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평양을 방문했던 여러 사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평양 거리에는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검게 그을린 마른 얼굴에는 무표정한 표정이 보인다. 평양 시내는 편도 6차선 도로로 쪽 뻗어 있으며 한국보다 훨씬 적은 차들이 길에 다니고 있다. 북한의 커다란 경기장에서 2만 명의 중학생 카드 섹션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을 포함해서 여러 장면들을 만들어 내는 솜씨는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 외에 4만 여 명이 동원된 대집단체조와 어린 유치원생들이 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의 집단체조를 볼 때에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이 실수도 하지 않으면서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평양 사람들과 만날 때 드는 느낌은 몽클함

이다. '이 사람도 나와 핏줄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내 형제구나.' 그들이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며 '통일되어 만납시다.' 라고 할 때 하루 빨리 하나되어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된다."

평양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깊은 감상주의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대학가에서 운동권 작곡가로 유명했던 윤석민 씨입니다. 그는 2003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평양에 가보세요"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힘들 때는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자기가 살게 되면 다시는 이런 노래 안 만들지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양의 아름다움과 꿈이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양을 바라볼 때 감추어진 진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감추어진 평양의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평양의 숨겨진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양의 그늘진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평양의 그늘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양은 전시 도시입니다.

평양은 북한 고위층과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특별 계급 도시이며 외국인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 도시입니다. 외부인들이 평양으로 들어오려면 특별 통행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행증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평양에 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북한 안에서 오랫동안 후원 사업을 했던 한 외국인이 “평양은 북한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인들에게 전시용으로 세워진 평양은 나머지 다른 북한 지역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 평양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평양은 북한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 공화국의 위대함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선전하기 위한 도시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들과 사적지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 평양은 북한 주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은 도시입니다.

주체사상탑, 만경대 고향집, 금수산기념궁전, 유경호텔에는 북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김일성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은 8억 9,000만 달러의 외화를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강냉이 600만톤을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식량구입에 사용했다면 300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는 비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평양이 숭배의 도시가 아니라 경멸의 도

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전하는 모습 속에 숨겨진 평양의 그늘진 모습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도시가 최악이 가득한 도시가 된 것을 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김일성 위상화의 중심지인 평양에서 예전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요 12:28).

2. 사도행전의 부흥과 같은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에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8)

3. 사업가와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들을 통해서 평양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20일: 신의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인기워 올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사 60:5)

신의주는 북한에서 중국과 맞닿은 마지막 도시이기 때문에 북한선교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의 문화나 종교가 이 길을 따라서 북한으로 전해졌는데 120년 전에 복음도 이 길을 통해서 북한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의주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배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도 신의주 제2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신의주의 인구는 약 34만여 명이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동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1911년 이후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경을 보면 두 도시의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단동은 환한 불빛과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건너편 신의주는 전기 부족으로 인해 사방이 어두컴컴합니다. 멀리 한 군데 작은 불빛이 어렴풋이 비추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김일성 동상입니다. 한 중국인의 말에 의하면 단동은 몇 년 사이에 천지개벽을 했지만 신의주는 옛날 모습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제가 단동 시

에 갔을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둥 시에서 수많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는 전체 식량과 물품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둥을 통해서 신의주로 수많은 물자가 들어가지만 성경이나 복음이 들어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바늘 귀 같은 통로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둥에는 크고 작은 선교 단체들이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선교단체들은 비밀리에 신의주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2005년 7월에는 비밀리에 선교를 하다가 잡힌 지하교회 성도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의주에 있는 지하교인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는 “북한 내부에 있는 지하교인의 숫자를 김정일이 알게 된다면 그도 놀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래에는 양빈사건 때문에 주춤하게 되었던 신의주 특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6년 5월 9일자 홍콩강 신문에 따르면 조선 신의주 도매시장이 곧 개장하게 된다고 했고 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삼성 등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의주 개방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미쳐 있는 사업가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주가 어떠한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인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이는 “신의주의 모델은 홍콩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카지노의 도시인 마카오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든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신의주가 북한 최대의 경공업 도시면서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방이 되면 수많은 사업가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방의 물결이 북한 선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주는 북한 선교뿐 아니라 세계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신의주가 경의선의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경의선은 일본이 1904년에 서울에서 신의주를 연결한 499km 길이의 철도입니다. 그러나 1945년 9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5년 후에는 전쟁 속에 완전 폐허화되었습니다. 만약 경의선이 다시 회복된다면 그 길이 중국을 통해 실크로드로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의주는 중국과 미전도 지역 선교 그리고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될 도시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신의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개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들이 다가오는 개방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3).

2. 하나님께서 다시 신의주 백성들과 성읍을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 62:10-12).

3. 신의주가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소서.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 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사 60:15-16).

21일: 개성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 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사 62:4)

얼마 전 한 유통 상가에 들렀다가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의 인형들을 보았습니다. 가격을 물어보자 생각 외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생각 외로 싸다고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개성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한국 사람이 개성공단에서 패밀리마트를 배경으로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말로만 듣던 북한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형제 나라인 북한이 점점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개성은 500년 간 고려의 옛 수도였고 남북한 주요 도시 중에서는 판문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배(1308.6km²)이고 인구는 38만 명 정도입니다. 개성에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개성이 한국의 70년대 초와 같다고 합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차 대신에 자전거가 눈에 많이 띄었다고 합니다.

2000년 8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회위원장과 정몽헌 현대 그룹 회장의 합의에 의해서 개성에 공업단지를 세우기로 결정이 되었고 2003년 6월에는 약 330만 평을 조성하는 제1기 공사가 기공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남북의 송전선이나 서울의 광섬유가 연결되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여 개 기업들이 가동 중인데 북쪽 노동자 4천 8백여 명, 남쪽 인력 5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과 시가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여의도 면적의 22배가 넘는 2천평 규모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업단지를 개방한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개방한 것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모두 군사 요충지이며 평양과는 달리 개성은 외국인이나 한국인들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제를 하기 쉬운 금강산관광과는 달리 외부의 물결이 쉽게 북한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북한의 변화되는 모습과 함께 개성공업단지가 남북한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북한 북음화를 위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안에서 일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접촉하는 많은 북한사람들과의 관계가 북한 선교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습니

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들은 북한이 개방되거나 통일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개성공단이 북한 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60km, 평양에서는 남쪽으로 1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개성이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양이나 다른 도시들보다 여러 면에서 쉽게 공략할 수 있으며 만약 개성에 좋은 기반이 다져진다면 평양과 다른 지역을 공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개성은 영적흐름을 다른 중요 도시에 전달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1903년 원산의 기도운동이 개성, 서울, 평양을 거치며 남북한 전역에 영적 전성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북한의 복음화와 한반도의 영적 부흥도 개성을 통하여 북한 전역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개성을 주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개성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이꼴거든 하

물며 이 큰 성읍, 니스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욘 4:10-11).

2. 개성 공단 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업체들을 심어 주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사 40:9).

3. 개성과 개성 사람들이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거점과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갈게 할 것이라”(사 41:15).

〈3부〉

간증과 북한을 위한
중요 기도 제목들



장대현교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22일 : 탈북자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6-7)

북한의 복음화를 꿈꾸었던 사람들에게는 탈북자들이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10년간 하나님께서는 탈북자들을 위한 북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았던 1997~1998년에 나온 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30만 명 가량된다고 합니다. 약간 과장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잠깐 식량을 구하러 나왔다가 들어가는 탈북자들을 포함한다면 가능한 숫자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탈북자 사역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탈북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중국의 주요 도시를 다닐 때 한국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탈북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현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국경이 많이 삼엄해진 것도 있고 북한 내부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제 삼국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사역자들에게 조직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2004년은 북한 사역자들의 수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 따르면 스페인 대사관 사건과 같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중국은 좀 더 조직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그 일을 돕는 사역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북한 사역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중국 공안에 잡히거나 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속출했고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잡혀서 복송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호의적이었던 중국 남부의 다른 국가들도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28일에는 태국 일간 네이션지가 태국과 라오스가 탈북자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간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고, 태국 북쪽에 있던 한 사역자는 4월 초에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태국 경찰에서 잡아서 다시 라오스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2006년 5월에 연길과 북한 접경지역을 다녀오신 새터민은 북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매스컴에 나온 후 중국에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며 더 많은 탈북자들을 붙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북한 군인만 매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북한 군인들을 매수해도 중국의 감시 때문에 북한을 떠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시점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는 탈북자들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고 사역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속출하던 '90년도 중반과 후반에는 많은 조선족교회들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탈북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말부터는 중국의 단속으로

많은 교회들이 탈북자들을 돕다가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돕던 선교사님들도 중국 공안에 잡혀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돕던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에게 큰 실망을 느끼게 되어 북한사역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탈북자들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돕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과 제 삼국에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5~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과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어떤 여자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주님께서 친히 탈북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피할 비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별이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 18:2).

2.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2).

3. 북한 사역에 식상해 하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 번 탈북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마9:36).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마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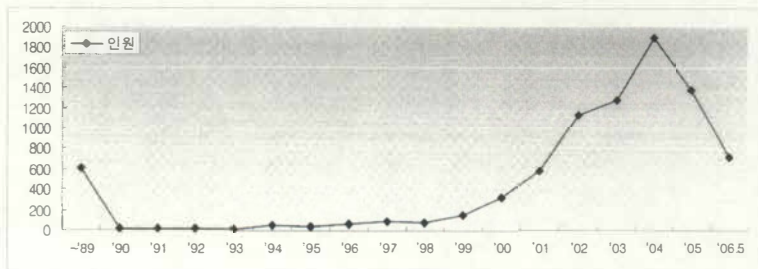
23일 : 새터민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 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사 58:9-10)

북한을 탈출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국했던 탈북자들의 수가 1998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증가해서 2004년에는 1,89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는 그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300명 가량 됩니다. 2006년 6월 현재 한국에 있는 새터민은 8,000여 명이 됩니다. 다음은 통일부에서 나온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06.5월말)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5 합계	사망 이민동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16	8,403	299	8,104



이제 곧 1만 명의 새터민 시대가 다가오기에 우리는 새터민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원인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우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한국 사장으로부터 많은 멸시와 비웃음을 받고 욕을 들었던 한 탈북자는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차별이 심하진 않을 것이니까 자기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지 않은 북한식 사고방식으로 남한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한 탈북자는 남한사회의 여자들을 닮아가는 자기의 부인을 보며 못마땅해 하면서 예전에는 대담도 못하던 것이 이제는 남편을 가지고 논다며 답답해 했습니다. 북한의 삶의 방식을 남한에서도 기대하며 남한사회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까지도 회피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 사람들 가운데 좋은 직장을 잡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80% 가량의 사람들이 직장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수치는 꽤 높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20대와 30대인 것을 가만해 볼 때 직장문제는 탈북자들의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부를 하는 많은 북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들은 한국에 와서 자기 나이 또래가 있는 학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들에게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몇 살 낮은 학급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종종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학원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며 고검이나 대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를 중단했던 북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헌금을 너무 강요한다,” “이제는 조직생활이 지긋지긋하다,” “예배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등이었습니다.

교회가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안식처와 같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교회들이 시행착오를 범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으며 몇몇 대형 교회들도 북한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아직 1만 명도 되지 않는 새터민들을 품지 못하면서 북한 전체를 품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2.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들의 이품과 모난 부분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모든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엡 4:2).

3.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훈련받아 북한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24일: 북한의 미래 지도자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15)

그동안 많은 북한의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때는 암담한 느낌이 들지만 또 어떤 때는 희망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청소년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은 북한에 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한 소년의 간증입니다.

탈북 소년의 간증

저는 북한땅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굶주리며 절망속에서 살아오던 한 소년입니다. 저는 탈북하기 전 북한 땅 단천시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배급도 안주고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된 저의 가정은 나와 동생을 남겨두고 아버지 어머니는 장사하러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있다 온다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돌아오지 않고 14살짜리 나의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집을 지키고 굶주린 움켜쥐던 동생은 할아버지 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 되어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의 동생은 시름 시름 앓다가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집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 마음이 미어질 듯 아팠고 너무나 억울하여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어린 나의 마음에는 세상이 너무도 야속하고 사회가 저주스럽고 아버지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다 먹을 것을 찾아 밖을 나가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어먹고 주워먹기도 하며 기차를 타고 황해도, 평양시, 량강도 각 곳으로 방황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차를 타고 온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국으로 건너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지옥같은 땅에 부모님과 고향을 뒤에 두고 2001년 여름 저는 캄캄한 밤에 소낙비를 맞으며 허기진 배를 쥐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몸에 병이 있고 허약한 상태인지라 사나운 장마비가 내린 물에 들어서자 몸은 떠내려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숨을 살리려고 중국으로 건너오다 고향에도 다시 못 가보고 부모님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떠내려 가던 몸이 무엇인가에 걸려 발을 내려보니 돌이 발에 걸렸습니다. '나는 살았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중국땅에 발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이 생명을 통하여 죽어가는 북한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 중국땅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어떤 조선족 집에 들어가니 “너희 북조선 사람들 이제는 보기도 싫다”며 공안국에 고발하겠다고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서자 나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먹을 것이 흔하고 개돼지도 낱알을 먹는다고 북조선에서 듣고 왔는데 천대하고 멸시하니 억울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조선족 할아버지와 아줌마를 만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 북조선에서 왔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예, 조선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자기를 따라 오라고 하여 따라가니 집에 들어가 먹을 것과 돈을 주면서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와 먹을 것을 먹으며 걸어 도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문에서 북조선 아이들과 만나 같이 사귀며 생활하였습니다. 거기서 동무들과 같이 공원과 교두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돈을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문 파출소에 동무들과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한 탈북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부르는 것이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를 적마다 기쁘고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집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더니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한다고 이야기 하며 감옥에서 자기의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나는 주소를 적어 가지고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자 그 사람이 적어준 대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후 몸에 있던 병이 다시 발병하여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저 같이 보잘 것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께서는 저를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소리 높여 외쳐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북한 땅을 사랑하시며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험벗고 굶주리는 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는데 나의 몸과 생명까지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삼촌과 큰어머님과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저를 알지 못하는 한국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저도 하나님의 사랑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6:8).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사명감을 안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부모없이 북한과 제 3국에서 헤매이고 있는 꽃제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소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 68:5).

2.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북한의 기초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 주소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사 61:3-4).

3.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고통받는 북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미래의 지도자(선한 목자)들을 북한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세워 주소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15)

25일: 북한 여자와 어린이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
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다”(시 18:2)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은 여자와 어린이들
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의 눈에 눈물이 고
입니다. 다음은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위로를 겪은 북한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북한 어머니의 간증

나는 1998년 11월 북한을 탈북한 여성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남편
과 함께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올망졸망한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살
얼음 낀 두만강을 건너선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
렀습니다. 그때 나의 몸 속에는 한 생명도 아닌 두 생명(쌍둥이)이 자
리잡고 있었고 물 설은 이국땅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내 집 식구를 반겨
주지 않았습니다.

행여 살 길이 있을가 보아 여기 저기로 떠돌아 다니다가 옆친 데 덮
친다고 길가에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100리 길이 넘는 산길을 허둥
지둥 달려온 것이 화근이 되어 조산아의 운명으로 태어난 팔삭둥이 쌍

둥이 딸들은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언 땅속, 차가운 흙 속에 묻혔습니다. 내 나이 서른 살도 되기 전에 내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작은 몸둥이를 묻어야 했던 그때의 슬픔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누가 말했던가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살배기 어린 딸마저 남의 잔등에 업혀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생의 의욕을 잃고 절망가운데 주저 앉았습니다. 하늘땅은 넓어도 내 집 식구들 품어줄 곳이 없는 이 세상을 저주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 가정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중국땅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내 가정을 사랑하셔서 주님품으로 불러주셨고, 오늘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국땅에서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지나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2003년 2월 10일 세상의 의학은 저에게 결핵성 흉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사이로 액체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심장판막증에 혈압도 높다면서 속히 입원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혹시 오진이 아닌가 싶어 항구도시의 제일 큰 병원에도 가보고 전문 결핵병원에도 가 보았지만 CT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제 몸속에 이미 임신 60일 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기쁨으로 잉태하고 해산해야 할 터인데 이미 나의 결핵균이 핏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아기를 포기하고 빨리 병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극구 강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천국에만 빨리 보내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북자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던 작년 2월 26일 나는 박 집사님과 함께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33일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서는 저에게 불법체류죄와 함께 탈북자들을 기독교 사상으로 양육하는 활동을 하였다며 북한으로 송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스페인 대사관사건(탈북자사건)으로 중국공안은 물론 세계의 여론이 북한 탈북자들에 대하여 운운할 때였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반드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생실 철창너머로 피어나는 빨간 살구꽃 봉우리를 보면서 한번은 죽어야 하는 생에 대하여 실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보다 강하고 힘있게 저를 붙들어 주셨고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으시는 그 날에 고향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소리 높여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다 하기까지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누워서 호흡하기가 너무도 힘이 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부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더욱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언어가 통하고 의학이 발달된 한국 땅에 가서 빠른 시일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시 118:17).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북한 여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북한의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들로 세워주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시편 25:17)

2. 어린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3.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피난처들을 여러 곳에 세워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26일: 북한선교 일꾼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8)

북한이 폐쇄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북한 내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북한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한 소년의 간증입니다.

북한선교를 다녀온 소년의 간증

2002년 00월 00일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씨앗을 들고서 북한으로 선교하러 갔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수속을 하였지만 북한 땅을 밟는 사람들은 적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는 수속을 무사히 끝마쳤다.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 보니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5일 동안 굶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입살과 옷 2벌을 주었다. 아마 여기 꽃제비들까지 다 주려면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처음 겪는 일이다.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산에는 나무와 풀들이 다 죽었고 논밭에는 곡식들이 다

메말랐으며, 여기 사람들은 1년 내내 힘들게 일하여야만 입살을 먹는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강냉이(옥수수가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굶어죽는 사람들도 한 동네에 2명 남짓하다. 우리는 그 동네에 입살을 1마대 내 놓은 후 그곳을 떠나 우리가 갈 친척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곡식이 메마른 밭에 “21세기 태양 김정일 만세!”라고 써어 있었고 유치원 문 앞에는 “위대한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 나라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태양처럼 모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잘 살지 못하기에 중국으로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우리가 6일 동안 묵어야 하는 집은 형편 없이 구차하였다. 우리는 가자마자 그들에게 물건들을 주었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일평생 일하여도 TV를 못산다며 너무도 좋아 모두 다 함성을 쳤다. 참 불쌍하였다. 나라를 잘못만나 이렇게 사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식사 후 짐들을 풀어놓은 후 동네 사람에게 옷을 1벌씩 주었다. 사람들은 다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후 공책, 연필, 고무, 원주필 등 학용품들을 많이 가지고 학교로 갔다. 학생들 책상 위에는 필기장이 없어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한다고 한다. 매 학생마다 2대의 연필과 3개의 공책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 정부사람들이 수시로 우리들을 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매일 새벽 3시부터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였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빈말로 듣던 것이 이젠 하나님 말씀하면 핵 돌아버릴 정도까지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북한선교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북한을 위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 시기를 원한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도 북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소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후 1:10).

2.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소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1서 3:16).

3. 북한에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 4:3).

27일: 복음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통일이 될 것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들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알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계시를 받은 분이 진 다넬 할머니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1995년 GCOWE 때에 YWAM 베이스에서 약 400~500명 정도가 모이는 금요모임에 방문 중이었다. 모든 것이 한국말로 진행되었고 내가 경배를 드리는 중에 남북한에 대한 선명한 환상을 보았다. 남북한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거대한 십자가가 평행하게 누워 있었다.

38선을 따라서는 큰 벽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벽에 가까이 가시게 하셨을 때에 마귀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서서 벽을 만든 것을 보았다(환상가운데서 그녀는 38선을 마귀들이 모여서 만든 벽으로 보았

던 것임).

십자가가 땅에 가까이 왔을 때는 넘어져서 그 끝 부분이 북한 땅에 박히는 것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거대한 크기였다. 남쪽 반대편 십자가 끝부분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손을 들고 북한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떨어질 때에 북한땅의 십자가 끝부분이 더 깊이 들어갔다.

북쪽 국경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업기들이 두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북한의 리더들이 남한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들에게 커다란 혼동이 있는 것을 보여 주셨다. 갑자기 땅에 박혔던 십자가가 땅을 헤치고 미귀들이 만든 벽을 부수자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으로 달려갔다.

당신은 남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중에 이런 것들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에 대해 격려하라. 실마리는 북쪽 국경선에 있을 혼란이 될 것이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제적이거나 상업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어찌면 북한 리더들의 포지션을 약하게 할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밀리에 숨겨 놓으신 백성(underground people)이 있다.”

오대원 목사님께서서는 1979년 2월 24일에 한반도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큰 나무가 남북한 위에 가지들을 드리우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 나무 뿌리의 한 쪽은 성령의 물인 바다 속에 그리고 다른 한 쪽은 하나님의 말씀인 땅에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계시해 주셨다. 그 부흥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덮여 있었고 누군가 그 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열매는 일본, 중국, 러시아(특히 러시아동부), 알래스카와 대양 남쪽 섬에까지 흩어지며 떨어졌다.”

하나님께서서는 38선을 허무시고 남북한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우리 민족 가운데 커다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복음 통일가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어이해 무너졌나 주님 슬퍼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동포를 위하여(*2)
〈후렴〉 한 제단에 엮으려 예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
통일 주옵소서.

지난 날 주님께 사랑받던 형제들 모두들 어디 갔나. 주님 부르고 계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중국의 내 형제를 위하여(*2)
그리스도 계절을 꽃피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옵소서.
서.

잃은 양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데 수없이 쓰러진 양 주님 탄식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세계의 내 형제를 위하여(*2)

타는 불길 되어서 온 세계를 밝히리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옵소서.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북한이 다시 살아나는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찌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겔 37:4-5)

2.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복음통일의 비전을 꿈꾸게 하소서.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겔 37:19)

3. 물리적이 통일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남북한이 마음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엡 2:14)

28일 : 1907년 대부흥운동(1)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행 19:18)

1907년 1월 6일부터 겨울사경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경회를 시작하기 전날 밤, 약 1500명의 신도들이 장대현교회에서 모여 특별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으므로 생동감이 없었고 모두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사였던 길선주 장로가 강단으로 나와서 설교 대신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고 말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개한 후 교회를 짓누르던 무거운 장벽이 무너지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의 뒤를 이어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는 7시에 시작되었는데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흥운동에 나타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바로 옆에서 듣는 가운데 다른 여인과의 간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청일전쟁 때 피난 가는 도중에 자기의 아이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자 그 아이를 나무에 쳐서 죽이고 도망 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과 불신, 구박과 폭행, 술과 담배, 간음

과 강간, 살인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죄를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장대현교회의 대부흥은 곧 숭실대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대현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던 숭실대학 학생들은 봄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의 불길이 퍼져서 학교 당국은 첫 주간 정규 교과과정을 중단하고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모였고 저녁시간에는 전교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는 글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몸부림치며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했다. 때때로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손으로 마루를 쳤다. 문자 그대로 악마가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았다. 그들은 고뇌 가운데 몸부림쳤다. 죄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은 마치 지옥을 열어 놓은 것 같았다. 살인, 간통, 그리고 방화, 술주정, 절도, 강도, 거짓말에서 증오, 멸시, 시기에 이르는 온갖 불결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역겨운 일들인가? 어떤 인간적인 권력도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어 고백하게 할 수 없다. 많은 한국인들도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랐다.”

1907년도에 임했던 성령의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학생들 중 어떤 이는 수업 도중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나라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흥청망청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유흥업소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불었던 대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졌고 1910년까지 계속되어 중국과 만주,

몽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1907년도에 부어주셨던 회개의 영을 다시 한 번 부어 주소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 6-7).

2. 한민족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교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3. 주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북한이 복음화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29일 : 1907년 대부흥운동(2)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의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요1서)

강렬했던 부흥의 역사는 중보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중보기도 운동들입니다.

1. 원산기도회

원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1903년 중국 여선교사 화이트의 내한을 계기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곧 장로교 선교사와 한국인 신도, 침례교 선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기도회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기도 모임 중에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은 우월주의와 자만감, 권위주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 이후에 당시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함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디 선교사는 이 기도회의 성령체험을 원산교회 주일 예배 때 설명하며 한국인 교인들 앞에서 다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후 기도회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은 1905년 개성의 남감리회 부

홍운동으로 이어지고 1906년 서울과 평양에서 불붙게 되었으며 1907년 대부홍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선교사들의 정오기도회

평양거주 선교사들이 1906년 8월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감동 때문에 8일간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강사는 원산의 하디였는데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평양에서 열리는 겨울 남자 사경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끈기있는 기도로 1906년 말 평양지역의 영적 분위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성숙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분위기를 힘입어 선교사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갖던 친목모임 대신에 곧 개최될 예정인 장로교인의 남자 사경회와 감리교인의 사경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907년 1월 2일 장로교 사경회가 시작되자 참석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오기도회를 중단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너무 강렬하여서 사경회 기간 동안 매일 정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평양부흥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의 오순절 첫째 날(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정오에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더욱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강렬하고 끈질긴 기도가 평양부흥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3. 기도달력

1905년도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이 한국복

음주선교회 연합공의회를 조직하면서 여러 다른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해마다 기도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하였고 매해 정초는 한국의 오순절을 위한 특별 기도일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교인들은 이 기도달력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으로 1907년 1월에는 한국교회에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4. 통성기도(united audible prayer)

통성기도는 1906년 가을, 한국을 방문한 하우드 애그뉴 존스톤(Howard Agnew Johnston) 박사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웨일즈 부흥운동 소식을 소개하면서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에도 그와 같은 부흥을 간절히 원했기에 한국교회에 통성기도를 도입했습니다.

통성기도는 1월 14일 월요일에 그래함 리 선교사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리 박사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모두 기도합시다.”라고 통성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회중이 다 함께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기도의 모습을 본 블레어는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함께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영혼과 소리의 거대한 조화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기도의 충동에 영들이 함께 어우러져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성령에게서 위에 계신 한 분 아버지께 올려졌습니다.”

통성기도는 한맺힌 한민족의 심령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한국 민족에게는 가장 적절한 기도형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주셨습니다. 만약 함께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없었다면 1907년 대부흥의 불길은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5. 새벽기도

전세계에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는 달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새벽기도회를 매일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새벽기도를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토착화시키신 분은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교에 심취하여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기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종 후에도 기도 대상만 바뀌었을 뿐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새벽기도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 스스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새벽기도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볼 때 새벽기도 자체가 길선주 장로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선주 장로의 위대한 점은 새벽기도를 한 개인의 새벽기도 습관을 넘어서 집단화시킨 데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박치록 장로와 함께 1905년도에 세계 교회사에서는 최초로 교회에서 단체로 모이는 새벽기도회를 시작함으로써 개인새벽기도를 교회에 접목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기도회가 한국 교회들 안에 토착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입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열기는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길 장로는 박치록 장로와 함께 새벽기도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며 한국 특유의 신앙형태로 뿌리내리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들처럼 전국적인 집단적 새벽기도회를 갖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났던 새벽기도회는 1907년도 대부흥운동의 불길을 일으키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였고,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에 새벽기도회를 토착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북한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부흥도 없고 간절한 기도들이 올려지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1907년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갈망하며 몸바쳐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행 1:14).

2. 한국의 여러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대부흥의 때처럼 다시 한 번 한민족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울부짖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증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 46:5).

3. 한반도에서 일어날 부흥의 물결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모슬렘 및 전 세계로 뻗어가게 하셔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시 86:9).

30일: 북한을 위한 24시간 중보기도 운동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칭찬)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6~7)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황폐케 되어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결심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중보기도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에스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같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평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커다란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났었기에 평양은 오래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이 영적으로 황폐되어서 더 이상 부흥의 중심지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북한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2003년 1월 20일에 전에 중국에서 함께 24시간 중보기도운동을 했던 탈북동포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속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꿈에는 김정일위원장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 않은 앞날에 내 나라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지역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와 북한을 향한 기도의 불길을 지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희는 적은 숫자였지만 중국의 한 지역에서 한국동포, 북한동포, 중국동포, 미국동포가 모여서 24시간 돌아가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회복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북한을 위한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루에 30분 혹은 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들의 외침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순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순복, 성령 임재, 대적기도, 믿음, 북한기도, 감사와 찬양)

1. 북한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눅 18:7)

2.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기도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3. 전략적으로 24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제4부〉
부 록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 58:12)

1. 중국에서 온 편지

그간 안녕하십니까?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두 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이 선생님편에 이렇게 급한 필을 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세와 다니엘이 꿈꾼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모세의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속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꿈에는 김정일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랍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저희 식구들은 더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무지한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앞날에 내 나라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식구들도 세계와 북한을 향한 기도의 불길을 지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턱 없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 받아 주님 원하시는 그날

에 담대히 복음 들고 북한 땅 가운데로 달려 나갈 것 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소마다 널리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나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대열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겔 36:37).

끝으로 우리의 삶을 늘 풍족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엘사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국에서

2003년 1월 17일

2. 곡산의 순교자들

한 어린 소녀의 어머니였던 김목자와 26명의 신자들이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들의 눈을 피해 땅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도로를 건설하려고 길을 뚫는 과정에서 그들이 숨어있던 장소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새벽에 곡산 주민 3만 명이 운집한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공개재판을 거친 후 처형될 예정이었지만 정당한 공개재판의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공산당원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제안을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산당원이 기독교인들 중 어른들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이들을 목 매달 것이다. 김목자의 딸이 그녀를 바라보며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몸을 숙이고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 한 명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목 매달려 죽어갔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을 도로로 데려간 다음 도로 포장에 사

용하는 증기 롤러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한 공산주의자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은 눌러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들과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운전사가 육중한 증기롤러에 시동을 걸자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더욱사랑. /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빛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부서져 갔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는 그 찬송소리가 들렸고, 마지막 찬송소리마저 끊어지자 오히려 소리없는 찬양이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 갔습니다.

3. 진 다넬의 환상(영문)

"At the GCOWE in 1995, I was visiting one of the Friday services at one of the YWAM bases and it was 400-500 people attending. Everything was in Koreans, and as I was worshipping, I had a vivid pic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above it was a huge cross lying horizontal, coming down out of heaven over both nations. Along the border, I saw a big wall, and as the Lord drew me close to the wall, I saw demons, standing side by side making a wall. As the cross got closer, I saw the cross tip and the end go into the ground in North Korea. It was with vast in it's size. The end over South Korea, had thousands of Koreans praying with hands raised in intercession for North Korea, and they jumped as they prayed and the end went deeper into North Korea. At the northern border, I saw many people, and I saw business people, in panic, a great disturbance, and then God showed me that the leaders of Korea stopped looking the South but to the North and there was a great distraction to

them. Suddenly, the cross broke open the ground, and broke the wall of demons and thousands of Koreans went rushing into North Korea. As you intercede for Korea, be encouraged that you should keep focussed in your prayers. The clue that this is about to happen will be a disturbance at the northern border of Korea. It wasn't a military thing, but rather commercial or economic. This may weaken the position of leadership of North Korea. Church be ready to invade North Korea with the gospel. God has his underground people already."

4.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 언더우드 선교사 -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 먼저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의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날이 있을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5. 기업무를 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책임

몇 사람들과 함께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두만강가에 갔었습니다. 5초만 달리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북한 땅을 밟고 싶은 욕망 때문에 천천히 물에 들어가 북한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건너가서 북한 땅을 밟아도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북한 땅을 밟지는 않고 강 중앙에 있는 커다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북한 땅을 밟을 때 숨어 있는 북한군이 총을 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긋는 두만강 중앙에 있는 돌 위에서 몇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내가 왜 바로 눈앞에 있는 동포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남과 북을 갈라놓았는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길에 있는 북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리따운 북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시키자 그곳에 같이 가셨던 짝꿍은 집사님이 북한 여자들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더니 두 명의 북한 여자들이 “반갑습니다”와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배워왔던 것과는 달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갖고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공사상을 어릴 때 학교에서 투철하게 받아온 저는 그들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눈 뜬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몇 해 동안 저는 한국 핏줄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은 북한에 대해 기업무를 자’라는 개념이 정리되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처해있는 상황을 생각해볼 때 이 기업무를 자라는 것은 북한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룯기를 보면 ‘기업무를 자’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룯기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룯이 나옵니다. 그 둘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조차 없어서 룯이 그녀의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룯을 본 보아스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것도 주고 더 많은 곡식을 줍도록 도와 줍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 룯에게 창녀만이 행할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밭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룯 2: 20, 3:4)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행하였고,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운 것을 느낀 보아스는 깜짝 놀라 너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녀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무를 책임을 이행할 기회를 먼저 주고 그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더 가까운 친족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을 꺼려서 기업무를 책임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기업무를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을 사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탄생하고 이 핏줄을 통해서 예수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 시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왜간 남자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누우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백성들에게 칭찬 받았었는데 왜 나오미의 말대로 한 남자의 발치 이불로 자신을 덮고 그 사람의 발치에 누웠을까요? 또한 보아스는 왜 룻에게 더러운 계집이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다고 그녀를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기업무를 자란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무를 자는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에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 kinsman redeemer인데 번역하면 혈연구속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핏줄로 연결된 구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들의 가까운 친족이나 친척이 그들의 어려움을 돕도록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가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마15:3~6)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8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하였고, 5:16에서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핏줄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순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말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사랑으로 더 잘 돌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기업무를 자, 혈연구속자의 개념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족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개념이 북한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북한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즉 민족적인 상황에서 커다란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기업무를 자, 즉 혈연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이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나라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형제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끼 식사를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팝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 대다수가 크리스마스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국이 북한의 가장 가까운 혈연구속자이고, 북한이 기업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혈연구속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무를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혈연구속자의 네 가지 의무를 통해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무를 자의 네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난한 친족의 땅을 사줌

2. 자녀 없이 죽은 친족의 부인과 결혼해 핏줄을 이어줌

3.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복수함
4. 친족의 죄 값을 받거나 친족의 죄지은 대가에 동참함

우리는 위의 네가지 의무를 남북한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기업무를 자로서, 혈연구속자로서 한국의 책임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I. 북한의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을 위해 우리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5:2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형제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그 기업을 찾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형제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나온 21살의 북한 자매를 만났었습니다. 나이는 21살이었지만 먹지 못했기 때문에 16~17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크리스마스를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아느냐고 묻자 성탄절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예수님을 아느냐고 묻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땅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탄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위대하신 수령님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떠돌다가 팔리는 여자들

이 한 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기쁨 가운데 함께 사는 가정이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북한의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직접 그들을 먹이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업무를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2. 우리는 북한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통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신 25:5-6)

기업무를 자의 두 번째 의무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몇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외도 사실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옛날의 미국 같았으면 그는 대통령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을 텐데 아무 일 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런 일이 있는 후에도 그의 인기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있을 당시 미국의 경제가 아주 좋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경제를 유지하는 대통령이면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미국의 영웅을 뽑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일등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등으로 빌 클린턴이 뽑힌 사실입니다. 성적으로 물란 했던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10대 영웅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성경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 1억을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몸도 주겠다는 아줌마들이 60%가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원조교제를 하는 우리의 십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경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야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피해가 오지 않게 하는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통일은 절대 안 돼요. 둘 다 거지 돼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통일이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결혼해야 됩니다. 즉 북한과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즉 하나 됨을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웠던 친족은 자기의 기업에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롯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도 롯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을 궁핍가운데서 건졌으며 보아스와 롯의 후손가운데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북한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십자가는 바로 커다란 영광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희생이 후에는 커다란 축복으로 바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북한과 결혼을 해서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 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가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

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민 35:20-28). 성경에 성경에서는 자기 친척들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친척을 위해서 살인으로서 복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이 왕들에게 붙잡혔을 때 집에서 길리온 318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 자신과는 피로 연결된 관계였기 때문에 전쟁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롯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친척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하는 가족식구나 친척을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피를 보수하는 자의 복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기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둠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김정일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에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사단에게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온 한 탈북자의 간증입니다.

“저희 집 식구는 모두 네 식구였어요. 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단란한 저의 가족은 불행하게도 아버지, 어머니의 부부 싸움으로 온 가족이 파괴되는 비극에까지 처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계속되는 부부싸움, 나중에는 리혼(이혼)하는 비극, 정말 이 모든 불행한 일은 철 없었던 제 어린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겨 놓았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먹었어요. 다만 제 육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이렇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값 없이 살던 제가 사랑하는 동생과 불쌍한 어머니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막힌 생각으로 눈물 흘리며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3월 달의 밤이었어요. 저는 중국에 와서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저는 주님을 알면서도 제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너무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괴로움에 파묻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일이 잘 안 되니까 말이에요. 저는 처음 아버지를 위해서 떠듬떠듬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믿음이 차츰 차츰 들어서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나온 과거를 예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하였어요. 망망한 바다의 쪽배처럼 떠다니던 인생,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값 없이 살던 제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마음까지 먹었던 제 자신, 어쩌면 이 지나온 괴로움과 슬픔, 외로움은 다 꿈만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제게 위로를 주시고 부모의 원망 대신에 부모를 감사하게 하셨고 슬펐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웃음이 없었던 제게 늘 웃음만을 안겨 주셨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앞날에 대한 새 소망을 주셨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겨자씨 정도이지만 크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4. 우리가 복한의 죄 값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민 5:6-9)

구약에서는 만약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입힌 것에 오분의 일을 더 더해서 본주(본래의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주가 받지 못할 경우 그의 친족이

죄의 값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만약 친족이 없을 때는 제사장이 수지 맞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족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예는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이들과 딸들이 죽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친족이 죄의 값을 받게 되는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죄의 값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았던 다니엘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재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도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짚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죄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짚어지고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회개

하기를 원하십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16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과 다른 한 청년이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인 것처럼 북한이 망하게 된 것도 죄 때문이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북한의 죄를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도중에 16살짜리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느헤미아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울며 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혈연구속 자로서 북한과 남한과 우리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기업무를 자이신 예수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기업을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하시려고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살점을 뜯어 놓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살을 파고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배신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998년 11월 23일에 밴쿠버에 있었던 찬양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두 명의 사람들이 간증을 했고 인도자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인도자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북한의 탈북 어린이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수없이 울게 되었다고 말한 후에 같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 북한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진 마음, 고통,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은 북한의 어린아이,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실 분이다”라고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어린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예화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 마음이 온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서 ‘아니요’라고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저의 귀에 들려오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예수님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북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북한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희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을 고귀하게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서적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2000), 생명의 말씀사
임 홀,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가이드북, 북한선교연대
오대운,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전도단
오대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예수전도단
정국용, 통일 전 기독교 교육 준비와 통일 후 기독교 교육, 2003년도 석사학위 논문
박상봉, 독일 통일/ 통일 한국, 진리와 자유
한화룡,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한화룡
The Voice Of The Martyrs, "Extrem Devotion", W Publishing Group

홈페이지

<http://www.nkchosun.com/>
http://www.kukminilbo.co.kr/missiontoday/c_histroy/root/rootlist.html
<http://www.unikorea.go.kr/>
<http://www.nk-infobank.com/>
<http://www.freenk.net/>
<http://www.NKhumanrights.or.kr/>
<http://www.dailynk.com/>
<http://unibook.unikorea.go.kr>
<http://ko.wikipedia.org>
<http://www.cornerstone.co.kr/>
<http://yerang.net/>
<http://www.durihana.com/>

북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30일 중보기도

- 초판 1쇄 발행 2006년 8월 30일
- 지은이 박용화 · 박은희 공저
- 발행인 김옥기
- 발행처 Godsend
- 판권 © Godsend
- 등록 2006. 7. 19(제439-2006-00005호)
충북 충주시 용산동 1678번지 30통 3반
용산주공아파트 207동 705호
- 전화 · 팩스 043-851-9570(대)
- 이메일 okkinina@yahoo

ISBN 89-958483-1-6

값 7,000원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되었던 나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나라, 고통과 신음과 굶주림 속에 눈 뜨고 죽어 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흠이 되어버린 나라... 그 땅 가운데도 복음의 씨앗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큰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흑암은 물러가고 복한을 덮었던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은 무너지며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보다도 더 강력한 회개의 영이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나 주님의 군사가 되어 북한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민족 가운데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값 7,000원



ISBN 89-958483-1-6